

석사학위논문

감정과학에 기초한
박물관 미학 연구

A Study on Museum Aesthetics

Based on science of feelings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화교차학협동과정 문화예술학전공

원 몽

2023

감정과학에 기초한
박물관 미학 연구

A Study on Museum Aesthetics
Based on science of feelings

지도교수 성 동 권

이 논문을 문화학석사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24년 5 월

국 민 대 학 교 일 반 대 학 원
문화교차학협동과정 문화예술학전공
원 몽
2023

원 봉 의

문 화 학 석 사 학 위 청 구 논 문 을 인 준 함

2024년 6월

심사위원장 유 영 관 (인)

심사위원 성 동 권 (인)

심사위원 최 인 호 (인)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차 례

국문 요약	ii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동기와 선행연구 분석	1
1. 연구동기와 선행 연구 검토	1
2. 선행 연구에 대한 문제제기	7
제2절 연구 방법	10
1. 감정과학	10
2. 대학과 중용의 감정과학	12
제3절 연구 범위	18
제2장 「대학」의 감정과학에 근거한 박물의 물(物) 이해	20
제1절 격물치지(格物致知)에 대한 일반 이해	20
1. 우관치(伍觀淇)의 ‘본말선후(本末先後)’	21
2. 서수(徐壽)의 ‘격물치지’관	24
3. 백종양(白宗讓)의 ‘집양용중(執兩用中)’	26
제2절 감정과학의 격물치지(格物致知)	28
1. 선행 연구 비판 및 문제제기	28
2. 「대학의 감정과학」으로 이해하는 격물(格物)	29
3. 「대학의 감정과학」으로 이해하는 치지(致知)	35
제3장 「중용」의 감정과학에 근거한 박물의 박(博) 이해	39
제1절 박학(博學)에 대한 일반 이해	39
1. 장학성(章學誠)의 ‘박학우문, 요지이에례(博學於文,約之以禮)’	40
2. 고염무(顧炎武)의 ‘박학우문, 행기유치(博學於文,行己有恥)’	41
3. 조형(焦竑)의 ‘박학계오(博學啓悟)’론	43
제2절 감정과학의 박학(博學)	46
1. 선행 연구 비판 및 문제제기	46
2. 「중용의 감정과학」으로 이해하는 박(博)	47
3. 「중용의 감정과학」으로 이해하는 학(學)	52
제4장 감정과학에 기초한 박물관의 본성	56
제1절 박물관의 기원과 교육적 기능	56
1. 박물관의 기원	56
2. 박물관의 교육적 기능	58

제2절 박물관의 아름다움과 성스러움	61
1. 박물관의 아름다움	61
2. 박물관의 성스러움	63
제5장 결론	66
참고 문헌	68
논문 초록	71

국문 요약

어릴 때 처음 박물관에 들어갔을 때, 박물관 전체 분위기에 충격을 받았다. 그 당시 박물관에 전시된 전시품들은 다양했는데, 역사 유물부터 예술 작품까지 모든 것이 아름답고 훌륭했다. 이것이 내 주의를 끌었다. 박물관에서는 일상에서 볼 수 없는 신기한 물건을 많이 볼 수 있다고 느꼈다. 그래서 나는 역사와 전시를 사랑하게 되었고, 박물관은 어릴 때부터 가장 자주 가는 장소가 되었다. 크게 자라면서도 여전히 각지의 박물관을 돌아다니며, 박물관이 제게 주는 새로움에 감동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박물관의 환경에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같은 목표와 이상을 가진 사람들과의 감정적, 정신적 공감을 느끼고 싶다.

현대의 박물관은 최근 몇 년 동안 급속히 발전해왔다. 유물 소장품이 더욱 다양해지고, 다채로운 내용과 독특한 특색을 가진 전시관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박물관은 여전히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미홍보, 교육 기능 부족, 관객 유치 실패 등의 문제가 박물관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국민대학교의 문화교차학을 선택했다. 이 논문을 통해 감정과학의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현대 박물관의 문제를 해결하고, 현대인들이 박물관 문화를 더 잘 이해하고 박물관에서 더 좋은 감정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논문의 제1장에서는 세 가지 문제를 제기한다. 첫째, 인류는 무엇 때문에 박물관을 건립하는가? 둘째, 박물관의 교육 기능에 존재하는 부족함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리고 셋째, 어떻게 하면 인류는 박물관에서 더 나은 미학적 체험을 할 수 있는가? 감정과학의 연구 방법을 확립하고, 인간 정신의 영원함이 박물관을 건립하는 이유임을 명확히 한다. 인간의 본성을 통해 박물관의 본성을 이해하고, 박물관을 아름다움과 성스러움의 학교로 정의한다.

제2장에서는 감정과학을 통해 유교 서적인 「대학」에서의 ‘격물치지(格物致知)’ 개념을 이해한다. 모든 것의 본성을 이해하는 것은 영원히 무한한 사실이다. 자기 안에서 마음을 통해 자기 이해를 하고, 사물의 본성을 탐구하여 감정에 대한 이해 개념을 형성하고, 감정을 적절히 배우고 이해함으로써 사물의 ‘순수지선(純粹至善)’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것이 감정과학 이해에서의 ‘격물치지’이다. 제3장에서는 「중용」에서의 ‘박학(博學)’ 개념을 감정 과학으로 이해한다. 우리가 박물관에서 배우는 것은 모든 사물의 본성의 필연성이다. 우리의 몸과 감정은 무한한 방식으로 무한하게 존재하며, 마음을 통해 사물의 본성의 필연성을 이해하고, 영원한 무한한 생명과 사랑을 추구함으로써 최고의 행복을 이룰 수 있다. 제4장은 제1장과 대응하여, 인류가 박물관을 건립하는 이유, 교육 기능 부족을 해결하는 방법, 박물관의 아름다움과 성

스러움을 이해하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한다.

그러므로 박물관의 미학은 인간이 만들어 낸 모든 것의 아름다움을 탐구하는 것이다. 모든 것은 순수지선으로 존재한다. 인간의 감정도 순수지선으로 존재한다. 순수지선으로 존재하는 인간의 감정이 자연의 순수지선을 이해함으로써 그 이해를 표현한 모든 것이 박물관에 있다. 이 사실을 배우는 것이 대학의 격물치지이며 중용의 박학이다. 우리가 박물관에서 마침내 달성하고 싶은 것은, 자기 감정을 적절하게 이해하고, 사물의 ‘순수지선’을 이해하는 것이다. 박물관은 인간의 감정과 정신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이는 아름다운 공간임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 우리가 박물관에서 알아야 할 것은 시대나 전 세계의 아름다움과 가치이며, 완전성의 감정적 아름다움과 행복을 경험하는 것이다.

주제어: 감정과학, 박물관, 미학, 인간정신, 인간문화, 인간본성, 교육적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동기와 선행연구 분석

1. 연구동기와 선행 연구 검토

1) 연구동기

박물관은 인류 문화의 전승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장소이다. 현대 박물관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지식과 문화 유산을 전시함으로써 관람객들로 하여금 박물관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 결과 우리는 인류의 역사, 과학, 예술, 문화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나는 처음 박물관을 방문했을 때, 박물관의 역사 전시장에 있는 다채롭고 아름다운 도자기들에 끌렸다. 인류의 도자기 창작에 대한 깊은 호기심과 탐구욕을 느꼈다. 이러한 호기심은 저로 하여금 인류 문화를 이해하고 학습하게끔 이끌었으며, 동시에 박물관 내의 다른 새로운 것들을 알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켰다. 오늘날 우리는 박물관을 통해서 본 적 없는 새로운 것에 대한 충격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박물관 환경에서 휴식을 취한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정서적, 정신적 공감을 느낄 수 있다.

나는 박물관이 주는 공간에서 인류 전체의 지혜와 예술품 창작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사람들은 전시물을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세계와 대화할 수 있고, 심지어 시간을 초월하여 과거와 미래와 대화할 수 있다. 박물관의 모든 유물과 작품들은 자신과 그 뒤에 있는 창작자들의 이야기와 감정을 담고 있으며, 각 나라의 시대별 사회와 문화를 표현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박물관의 기원과 발전은 깊고 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가 생각하기에, 박물관은 인간이 집단생활을 함으로써 사회 및 국가 단위를 형성하는 시기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다.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현대의 박물관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문화유산, 예술품, 기타 귀중품을 전시하고 보호하는 장소로서 소장, 연구, 교육 등의 기본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이처럼 박물관은 모든 시대와 사람들에게 문화에 향한 사랑을 담당하고 있다. 나는 박물관의 존재 의미와 그가 존재하는 미학적 개념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박물관의 아름다움은 건축물의 아름다움과 전시품의 아름다움만이 아닌가? 이 아름다움과 박물관의 관객들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본문에서 제시

될 것이다.

이 논문은 현대 인류가 박물관 문화를 잘 이해하고 박물관의 존재 가치를 극대화하며 박물관의 미학적 의미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유교 저서 '대학(大學)',¹⁾의 '격물치지(格物致知)'와 '중용(中庸)',²⁾의 '박학(博學)'에 대한 개념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궁극적으로 인간 정신의 영원을 밝혀준다. 왜냐하면 인간 정신의 영원성이 인간으로 하여금 박물관을 생각하고 그 공간을 실현하기 때문이다. 인간 정신이 영원하지 않다면 과거의 유물을 박물관이라는 한 공간에 모아둘 그 어떤 이유도 없다. 이 주제는 본론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겠다. 다만 이 주제와 관련하여 본 논문은 '격물치지(格物致知)'와 '박학(博學)'의 개념을 감정과학으로 분석하고, 박물관의 본성을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로부터 박물관은 인류문화의 결정체를 배우는 성스러운 학교이며, '순수지선(純粹至善)'의 '물(物)'을 저장하는 장소이다. 그러므로 나는 인류가 박물관을 통해 인간의 감정과 생명의 영원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박물관의 공간에서 '사람'과 '사물'이 이루는 미학적 구조를 밝히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검토

(1) 박물관의 기원과 발전

① 박물관의 기원

박물관은 인류 역사에 오랫동안 존재해 왔으며 박물관의 기원과 발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논의를 찾을 수 있다. 지영매(池永梅)는 '유럽에서의 공공박물관의 기원'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박물관은 소중한 물건을 수집하는 인간의 성향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는 사유제의 등장과 노예 사회의 출현과 함께 나타났다. 보물을 수집하는 행위는 박물관의 초기 현상이자 그 본질을 대표한다. 원시 사회에서는 생산력이 낮아 정상적인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협동해야 했으며, 사유화의 개념이 없었다. 그들이 창출한 사회 부의는 완전히 공개되었으므로 물건을 보존하거나 수집하는 행위가 없었다. 그러나 노예 사회가 도래하면서 생산력이 크게 향상되었고, 사회 부의가 계속해서 증가했다. 이로써 일부 인간들은 대다수와 비슷한 육체 노동에 종사하지 않고도 두드러질 수 있었다. 문명의 발전에 따라 사유제도도 발전하였다. 사회 부의의 지속적인 축적은 사유 소유 확장을 가져왔고, 이에 따라 문화 보물을 개인 수집을 위해 수집하거나 약탈하는 현상이 나타났다.¹⁾

이 글은 박물관의 최초 본성을 ‘희귀품 수집’이라고 주장한다. 인류 박물관의 기원은 노예제 사회 시기로 역추적될 수 있으며, 이때 사회 생산력은 현저하게 향상되고 부는 끊임없이 축적되었다. 이 기간 동안 일부분 사람들은 다수와 일치하지 않는 육체 노동에서 벗어나 사회 계급의 정상으로 올라섰다. 이 특권 계층은 사회 부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부를 소유하기 시작했고, 때로는 문화적 보물을 사적으로 소장하기도 했다. 이 과정은 일부 부유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개인적인 취향을 추구하고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기 위해 다양한 귀중한 물건을 수집하고 소장하며, 이를 전시함으로써 결국 박물관의 초기 형태를 형성했다.

박물관에 처음 등장한 초기 형태의 뮤즈 신전은 왕실이 소장하던 장소, 일명 ‘기진실’(奇珍室)이다. 주로 희귀한 물건들을 전시하고 보존하는 데 사용되었다. 최초의 박물관 모습은 인간이 개인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생겨났다고 말할 수 있으며, 그 출현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인간 사회의 발전과 미적 요구의 필연적인 결과이다. 물론 이러한 상황에서의 박물관은 어느 정도로 당시의 인류 문화와 예술을 효과적으로 보존해 왔다. 이러한 기이한 물품들은 왕실과 귀족의 사적 수집에서 소중히 여겨지고 보호되어, 인류의 문화 유산을 중요하게 보존하는데 일조했다.

② 박물관의 발전

자연과학의 발전과 사회변혁에 따라 옛 왕권체제는 과학발전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되었다. 이러한 불편한 진실로 인해 등장한 것이 ‘공공 박물관’이다. 지영매(池永梅)는 ‘유럽에서의 공공박물관의 기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1683년, 애쉬몰린 박물관의 개관은 박물관 문화를 개척하였으며, 영국에서 첫 번째 공공 박물관으로 손꼽히며 일반적으로 세계 최초의 진정한 박물관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 당시에는 이 박물관의 관람객 대부분이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 및 학생을 대상으로 했는데, 해당 박물관의 공식 명칭은 “애쉬몰린 박물관, 자연사 학교 및 화학 실험실(Museum Ashmoleanum, Schola Naturalis Historia, Officina Chimica)”로 알

1) 지영매(池永梅), “公共博物館在歐洲的起源(유럽에서의 공공박물관의 기원)” 廈門大學校(샤먼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2018), p. 7.

※ 인용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博物館起源於人們對珍貴物品的收藏行爲，隨著私有制的產生和奴隸社會的到來而出現。收藏珍品是博物館的第一現象，也是其最初的本質。早在原始社會裏，生產力低下，人們需要共同勞作才能保證正常的生存，沒有私有化的概念，他們創作的社會財富是完全公開的，因此也不會有保存收集物品的行爲，到了奴隸制社會，生產力大大提高之後社會財富不斷積累，使得一部分人脫穎而出可以不用從事和大部分人一樣的體力勞動，伴隨著文明的發展，私有制也隨之而來。社會財富的不斷積累帶來了私人占有財富現象的擴大，於是出現了搜集或掠奪文化珍寶以私自收藏的現象。

려져 있다. 애쉬몰린 박물관은 평범한 기이한 물건의 방에 비해 새로운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그 중 하나는 17세기 말에는 수집가들이 주로 학자들 간의 소통에만 제한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대중의 전시에 대한 급박한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더 이상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이에 더 큰 범위와 다양한 대중에 적합한 박물관 제도가 불거져 나오게 되었다.²⁾

이 글은 공공 박물관이 권력과 부의 분배의 혁명적인 변화에 응답하여 생겨났다고 주장한다. 이전 시대에는 이러한 자산이 특권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어 가치 있는 수집품과 예술품의 유통과 전시가 제한되었다. 그러나 사회가 큰 변화와 발전을 겪음에 따라 수집품 교류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더욱 넓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문화, 예술, 지식의 평등한 획득을 추구하게 되었다. 박물관과 대중 간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중요한 기관으로서, 애쉬몰린 박물관은 대중에 문을 열기로 결정하여 박물관 역사에 전환점을 가져왔다.

위의 아슈몰린 박물관의 정의에 비추어, 쑤동해(蘇東海)는 이 시기에 박물관이 자신의 수집 기능을 과학적 연구 기능으로 점차 전환했다고 생각했으며, 그는 「박물관 변천사강」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때, 과학 연구에 중요한 원시 자료를 제공하는 과학 박물관이 등장하게 되었다. 박물관은 종종 과학자들의 작업 장소이며, 소장품은 과학 연구의 대상 또는 자료가 된다.³⁾

이 글은 과학 박물관의 등장이 단순히 조직 형태의 변화뿐만 아니라 시대 발전 흐름에 부응한 결과라고 보고 있다. 최초의 수집품 개인 소유제도에서 현재의 열린 연구까지, 과학 박물관의 발전은 인류가 더 나은 과학 연구를 할 수 있는 독특한 장소를 창출해냈다. 이 진화 과정에서 처음에는 소수 특권 계층만이 감상할 수 있었던 귀중한 수집품들이 현재에는 과학 탐험의 최고 연구 대상으로 전환되어, 박물관에 새로운 가치 기능을 부여했다. 박물관의 수집 기능이 연구 기능으로 전환됨에 따라, 인류는 이미 이러한 박물관 소장품이 내포하는 중요한 가치에 대해 인식하고,

2) 지영매(池永梅), “公共博物館在歐洲的起源(유럽에서의 공공박물관의 기원)” 廈門大學校(샤먼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2018), p. 35.

※ 인용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1683年, 阿什莫林博物館的開放開創了博物館文化, 成為英國第一個公共博物館, 通常也被認為是世界上第一所真正的博物館。在當時, 該博物館的觀眾主要面向的是牛津大學的教職員和學生, 因為該博物館的正式名稱是“阿什莫林博物館、自然史學校和化學實驗室(Museum Ashmoleanum, Schola Naturalis Historia, Officina Chimica)”。阿什莫林博物館相比於往常的普通奇珍室, 具備了新的特點。其一: 17世紀末, 收藏家們只限於學者之間的關於藏品的交流已經不能適應滿足於大眾對於展覽的迫切的需求, 一種適應於更大範圍、更多公眾的博物館體制已經呼之欲出。

3) 쑤동해(蘇東海), 「博物館演變史綱(박물관 변천사강)」 (中國博物館(중국박물관), 1988), p. 15.

※ 인용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這時, 為科學研究提供重要的原始資料的科學博物館就應運而生了。博物館往往就是科學家工作的場所, 藏品就是科研的對象或資料。

이를 과학적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자연 및 사회과학의 발전에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요약하면, 박물관의 설립과 발전은 인류 사회의 동적 진보와 변화와 내재적으로 연관이 있다. 박물관의 설립은 다양한 수집품을 보존하고 연구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의 직접적인 결과이다. 인류는 시대적 목적을 위해 박물관 공간을 세웠으며, 어느 정도로 박물관 소장품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기도 한다. 박물관 소장품은 문화, 예술, 자연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인간의 감정과 정신의 핵심을 담고 있으며, 인류가 박물관을 통해 문화유산을 계승하는 것도 인간의 감정과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다.

(2) 박물관의 교육적 기능

위에서 언급한 박물관의 기본 기능 외에도 박물관은 일찍이 19세기에 사회 교육의 새로운 기능을 배양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현대 박물관의 사회 교육 기능은 여전히 몇 가지 문제가 있으며 장샤오잉(張曉英)은 '새로운 상황에서 박물관의 사회 교육 기능 발휘에 관한 연구'⁴⁾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청중의 요구를 기반으로하지 않아 교육적인 측면이 강하지 않다. 박물관은 계속해서 대중들을 유혹하여 박물관으로 들어오게 하거나,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대중들이 박물관을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박물관은 학문적 연구, 전시물 전시 등에서 혁신을 꾀해왔지만, 여전히 대중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특히 청소년들의 참여 열망을 자극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주로 박물관 관리자들이 대중이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을 실제로 발굴하지 못했거나, 현재 대중과 특히 청소년들의 정신 문화적 요구와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 일부 대중은 박물관에 흥미를 가지지 않고, 박물관의 사회 교육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게 되었다.⁴⁾

이 글은 현대의 박물관이 지속적인 개혁과 혁신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교육가치를 높이려 노력하고 있지만, 대중의 관심을 실질적으로 이해하지 못해 군중의 열정을 자극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일부 인구를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4) 장샤오잉(張曉英), '新形勢下博物館社會教育職能的發揮研究(새로운 상황에서 박물관의 사회 교육 기능 발휘에 관한 연구)', (文化產業(문화산업), 2022), p. 101.

※ 인용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第二，沒有立足於受眾的需求，教育性不強。博物館要不斷吸引廣大民衆走進博物館，或者借助各種手段讓民衆了解博物館。近年來，博物館雖然不斷地在學術研究、展品陳列展出等方面推陳出新，但是仍不能滿足民衆的需求，特別是無法激發年輕群體的參與熱情。這主要是由於博物館管理者沒有真正發掘到民衆對歷史文化的興趣點，沒有與當前民衆，特別是年輕群體的精神文化需求結合起來，所以導致部分民衆沒有興趣走進博物館，也就無法充分發揮博物館的社會教育職能。

로써 박물관이 자신의 사회 교육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의 많은 박물관이 학생들을 박물관에 초청하여 학습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박물관의 문화를 진지하게 이해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박물관의 교육을 지루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외 여가 활동을 통해서 더 흥미로운 경험을 얻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역사 지식이나 작품 디자인 이론을 계속 주입하는 것보다는 그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즐거운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박물관 교육 기능이 젊은 세대에서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한다.

요약하면, 현대 사회에서 박물관의 교육 가치는 아직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분야에서는 개선과 완성이 필요하다. 박물관 자원은 풍부하고 문화적 의미가 크지만, 아직 교육 기관으로서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을 펼치기 위해서는, 현대 박물관이 어떻게 더 나은 방식으로 관객을 끌어들이지, 특히 젊은 세대를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대상으로 삼을지가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박물관이 전하고자 하는 문화적 정신을 현재의 젊은이들의 관심과 성향에 연결시키고, 혁신적이고 재미있는 방법을 도입하여 더 많은 학생과 젊은이들이 박물관의 매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3) 박물관의 인간과 사물에 대한 미학적 개념

박물관이라는 큰 공간에서 인간과 사물은 상호작용하면서 독특한 미학적 개념을 형성하는데, 쟁커밍(曾克明)은 「박물관 공간과 서사의 미학적 탐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박물관은 전시를 통해 ‘물’을 전시물로 변환하고, 박물관의 공간과 서사를 통해 전시물을 원래의 문화 맥락에서 벗어나게 하여, 전시물의 형태로 전시 기획자가 부여한 새로운 미학적 의미를 나타낸다. ‘물’이 전시물로 변하는 동시에, 관람객 또한 ‘사람’의 방문 활동을 통해 전시물이 갖고 있는 역사적 기억, 문화적 상징의 의미 등을 서술하게 된다. 따라서, ‘물’의 문화적 맥락, 미학적 의미와 ‘사람’의 공간적 움직임에서의 심미적 행동이 함께 박물관 공간과 서사의 주체를 형성하며, 이를 통해 특유한 ‘사물’과 ‘사람’의 미학 및 심미적 의미가 나타난다.⁵⁾

5) 쟁커밍(曾克明), 「博物館空間與敘事的美學探究(박물관 공간과 서사의 미학적 탐구)」, (美術觀察(미술 관찰), 2019), p. 66.

※ 인용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博物館通過展覽將“物”轉變為展品, 通過博物館的空間與敘事使展品脫離其原有的文化情境, 以展品的形式呈現策展人所賦予的新的美學內涵。“物”在轉變為展品的同時, 通過觀眾即“人”的參觀活動, 使得展品承載的歷史記憶、文化符號意義等得以被敘述。因此, “物”的文化情景、美學意義與“人”在空間運動中的審美行為共同構建了博物館空間與敘事的主體, 並由此呈現出其特有的“物”與“人”的美學及審美意義。

이 글은 박물관의 ‘물’, 즉 전시품이 원래의 이야기 형태를 변화시키고 다른 전시물과 보완하며 큐레이터의 이념으로 함께 전시되어 박물관의 새로운 미적 의미를 창조했다고 생각한다. ‘물’에 대응하여 ‘사람’의 출현은 전시 참여로 전시물의 이해를 촉진하며, ‘물’의 정적 특성과 ‘사람’의 동적 특성이 조화롭게 결합되어 새로운 미학과 미적 의미를 공동으로 형성하게 되었다.

요약하면, 박물관 내의 ‘물건’과 ‘개인’의 미학적 개념은 상호 연관되어야 함을 인식해야 한다. ‘물’이 특정한 공간에서의 역할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것은 아름다움을 창조하고 감상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전시물과 인간 체험 사이의 관계는 박물관의 전체 미학적 가치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 따라서 ‘물’과 ‘사람’의 상호 작용을 파악하고 이러한 요소들이 박물관이라는 공간에서 어떻게 공존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박물관 내의 미학적 교양과 감각을 실현하는 핵심이다. ‘사람’이 어떻게 박물관 내에서 ‘물’의 공간에서 ‘아름다움’을 체험하며, ‘물’의 존재를 충분히 학습하고 이해하는지에 대한 것이 특히 중요하다.

2. 선행 연구에 대한 문제제기

위의 선행 연구에 따르면 박물관의 현재 상태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할 수 있다.

- ① 인류는 무엇 때문에 박물관을 건립하는가?
- ② 박물관의 교육 기능에 존재하는 부족함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 ③ 어떻게 하면 인류는 박물관에서 더 나은 미학적 체험을 할 수 있는가?

본 논문에서는 감정과학을 통해 위의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이 연구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① 인간 본성
- ② 학교로서 박물관
- ③ 박물관에서의 미적 체험

다음은 위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다.

1) 인간 본성

위의 「유럽에서 공공 박물관의 기원」과 「박물관 변천사강」을 통해 박물관의 기원과 발전을 탐험했는데, 그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함이다. 왜 인류는 박물관을 세우려 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다. 그러나 위의 자료는 박물관의 설립과 사회 시대적 배경을 연관시키고 과학적 연구 기능을 소개했을 뿐 인류가 박물관을 설립한 진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다.

인류가 건립한 박물관의 진정한 이유는 사실 인류의 본성에 있다. 인류의 본성은 감정에 대한 학습이다. 인간의 감정은 인간의 정신을 형성하며, 이러한 인간의 정신은 무한함과 영원함을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감정에 대한 인간 정신의 이해는 그 본질이 필연성에 있기 때문이다. 원인과 결과의 필연성에 입각하여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면, 감정은 철저히 인과의 필연성을 따른다. 이로부터 인간의 정신은 필연성을 향한 인식을 자신의 본질로 갖는다는 사실이 분명하다. 그런데 필연성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 가운데 하나인 ‘우연’이 아니라 ‘단 하나’를 뜻한다. 이로부터 필연성은 영원무한을 대표한다. 따라서 감정을 필연성으로 이해하는 인간의 정신으로부터 정신의 본질은 영원무한이며, 이로부터 인간의 본질 또는 본성은 영원무한이다.

이 사실에 입각하여 나는 박물관의 본성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간 정신에 고유한 본성이 영원무한의 필연성이라면, 이 본성으로부터 박물관에 대한 생각이 유래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논문은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박물관의 본성을 연역하고자 한다. 즉, 인간 정신의 영원성으로 인해 인간은 박물관의 존재를 고찰하고 그 공간을 창조하게 되었다. 인류는 박물관의 공간을 이용하여 인류 지혜의 결실을 저장한다. 박물관은 단순히 역사 유물을 수집하는 종합 공간이 아니다.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인간 정신의 전승이다. 박물관은 유형체로 나타나며, 인간 지성과 문화적 업적의 정점을 대표한다. 그것은 단순히 문화재 창고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인류의 끊임없는 진화에 대한 경험, 공통된 역사와 문화를 탐구하고 배우고 감상하려는 정신의 영원무한을 생생하게 반영한다.

2) 학교로서 박물관

위의 「새로운 상황에서 박물관의 사회교육기능의 발휘에 관한 연구」를 통해 박물관

관의 기본기능인 교육기능이 현대박물관에서 그 최대의 가치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의 의미를 명확히 해야 한다. 우선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시할 수 있다.

인간의 정신에 고유한 본성을 영원무한으로 확인하고 이것으로 박물관의 본성을 연역할 때, 박물관의 기능은 무엇인가?

이 물음에 대한 논자의 답은 다음과 같다. ‘박물관은 영원무한의 필연성 안에서 사물의 본성을 이해하며, 그 결과 사물의 순수지선을 가르치는 학교이다.’ ‘박물관’의 ‘박물관’ 두 글자 중 ‘물’은 인류 문화의 결정체이다. 인류 역사의 각 시대는 해당 시대를 대표하는 ‘물’을 형성했다. ‘박’은 ‘박학’(博學)이다. 그래서 박물관은 인류 문화의 결정체를 배우는 성스러운 장소이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물’에 대한 ‘박학’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박물관의 본성을 인간 정신에 고유한 본성에서 연역하였으므로, 박학은 그 대상인 사물을 영원무한의 필연성으로 배우는 것이 된다. 이 배움을 향한 공간이 박물관이라면, 박물관의 기능은 본질적으로 사물의 본성을 배우며 가르치는 학교이다.

끝으로 사물의 고유한 본성을 영원무한의 필연성으로 배움으로써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이 학문을 통해서 자신은 자기 정신의 영원무한을 이해한다. 이 이해는 실질적으로 자기 존재의 진실을 영원무한으로 확인한다. 자기 생명의 영원무한을 이해하는 것 이상으로 축복이 있을까? 다음으로 사물의 순수지선을 감각적 현상이 아닌 그 자체의 본성으로 배워서 이해하는 정신력을 갖게 된다. 감각적 현상으로 대상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적 현상으로 드러나는 대상을 그 자체에 고유한 본성으로 이해함으로써 그것의 순수지선을 깨닫게 된다. 즉, 박물관을 인간 정신의 본성에서 연역함으로써 그 기능을 학교로 제시하면, 박물관을 통해서 자기 정신의 영원무한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대상 사물의 순수지선을 이해하는 정신력을 기르게 된다.

3) 박물관에서의 미적 체험

위의 「박물관 공간과 내러티브의 미학 탐구」를 통해 박물관 미학이 실제로는 ‘물’과 ‘사람’의 공통 개념임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어떻게 양쪽을 더 잘 결합시키고, 어떻게 인간들이 박물관에서 미학적 체험을 얻을 수 있는지는 특히 중요하다. 인류가

박물관에서 얻는 미적 체험은 사실 박물관에서 사물의 순수지선을 체험하는 것이다. 몸의 변화, 즉 감정을 통해 마음 스스로 생각해서 이해하고, 사물의 본성을 이해하고, 이 박물관의 공간 안에서 인간 정신의 아름다움과 영원을 이해한다. 전시물을 이해하고 연결하는 이러한 과정이 체험의 아름다움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전시물의 물리적 차원뿐만 아니라 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 그들이 불러 일으키는 감정, 그리고 그들이 담고 있는 인간의 정신도 감상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영원한 인간정신을 볼 수 있고, 박물관이 세심하게 기획한 전시를 통해 인간의 창의력, 열정, 지혜의 전승을 접하게 되며, 이러한 전승은 여러 시대로 이어지고 있다.

제2절 연구 방법

1. 감정과학

이 논문의 목적은 ‘감정과학’(感情科學, Science of Feelings)의 관점에서 유교 저서 『대학』의 ‘격물치지’와 『중용』의 ‘박학’에 대한 개념 연구를 통해 인간 정신의 영원을 탐구하는 것이다. 이 진실이 밝혀질 때 앞에서 말한 박물관의 본성을 연역할 수 있다. 이로부터 박물관의 기능 및 미적 체험이 무엇인지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 이하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을 사용한다.

성동권은 감정과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감정과학의 공리(公理)]

감정은 ‘몸’이 느끼는 ‘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몸의 이야기로부터 감정의 이야기가 당연히 연역됩니다.⁶⁾

[감정과학의 논리(論理)]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몸에 나아가 몸 그 자체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을 확인할 수 있다면, 감정을 몸이 하는 말로 이해하는 한에서 감정과학의 공리에 근거하여, 몸 그 자체의 고유한 본성은 당연히 우리가 공간과 시간을 살아가며 몸으로 느끼는 감정 그 자체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으로 존재합니다. 이것으로 감정은 자기 몸 그 자체의 진실을 자기 본성으로 삼아 오직 그 본성만을 따라서 존재한다는 필연성이

6) 성동권, 『유교문화의 학문 대학의 감정과학』 (부크크, 2022), p. 12.

확인됩니다. 무한한 방식으로 무한한 감정은 자기 안에 자기 본성을 품고 그것을 따라서 필연적으로 존재합니다.⁷⁾

우리는 무엇보다도 인간 정신에 고유한 본성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인간의 정신은 인간의 몸을 떠나서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다. 자신의 존재를 지금 자신의 몸을 떠나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지금 자신의 정신이다. 이 사실에 근거하여 스스로 생각해 보면, 정신의 본성은 자기 몸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것이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분명해야 한다.

한편, 인간 정신에 고유한 본성은 원인과 결과를 우연이 아닌 영원의 필연성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자기 존재를 확립하는 자기 몸에 대한 생각이며, 이 생각은 무엇보다도 자기 몸의 존재를 인과의 필연성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존재를 이해하는 것은 무엇이 존재를 확립하게 되었는지 결과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신이 자기 존재의 진실을 자기 몸의 존재로 확인한다는 사실이 분명하므로, 정신은 결국 자기 몸에 나아가 존재에 고유한 원인과 결과의 필연성을 이해하는 것이 된다.

정신이 자기 몸에 나아가 원인과 결과를 파악한다는 것은 자기 몸에 나아가 몸을 존재하게 한 원인을 파악하고, 그로부터 자기 몸이 결과적으로 생겨났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때 정신은 원인을 엄마아빠 이외 다른 것으로 생각할 수 없다. 즉, 지금 내 몸의 존재를 정립한 원인으로서 엄마아빠의 존재는 자기 정신이 자기 안에서 자기 스스로 확인한다. 엄마아빠의 존재를 경험하지 않아도 정신이 자기 몸에 대해서 생김에 고유한 인과의 필연성으로 스스로 생각해 보면 정신은 자명하게 엄마아빠의 존재를 영원의 필연성으로 이해한다. 이 이해로부터 정신은 자기 존재를 영원의 필연성으로 이해한다. 영원의 필연성으로 존재하는 엄마아빠에 의해서 지금 자신의 몸이 존재하도록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이해하기 때문이다.

이 이해가 곧 인간 정신의 영원무한을 증명한다. 인간 정신은 자기 몸에 나아가 원인과 결과 사이에 놓인 영원의 필연성을 인식함으로써 자기 몸의 본성을 영원무한의 필연성으로 인식한다. 이로부터 인간의 정신도 영원무한으로 증명된다. 왜냐하면 인간 정신이 영원무한이 아니라면 인간의 정신은 자기 몸에서 영원무한의 필연성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영원무한의 정신이 자기 몸에 대한 이해를 영원무한으로 형성할 수 있다. 그런데 감정과학의 공리에 의하면 몸으로 생겨나서 존재하는 것은 몸으로 살아간다. 몸으로 살아가는 몸의 진실이 곧 감정이다. 그렇기 때문

7) 성동권, '유교문화의 학문 대학의 감정과학' (부크크, 2022), pp. 12-13.

에 몸의 진실을 영원무한으로 이해하는 한에서 감정과학의 공리에 근거하여 감정의 진실 또한 영원무한이다. 그리고 이는 인간 정신의 진실에 근거하여도 당연하다. 인간의 정신이 영원무한이기 때문에 정신은 감정을 영원무한으로 이해한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감정과학의 공리 및 논리에 근거하여 확인하는 인간 정신의 영원무한에 근거하여 박물관의 본성을 탐구하고자 한다. 박물관의 본성을 탐구하는 이유는 논문의 목적인 본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순수지선의 아름다움을 알고자한 것이다. 인간의 정신이 박물관에서 이해하는 것은 자기 본성의 진실인 영원무한에 입각하여 박물관을 구성하는 모든 대상 사물(物)을 영원무한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 결과 인간 정신은 박물관을 통해서 모든 사물을 영원의 필연성 안에서 순수지선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곧 아름다움에 대한 본질적 정의이므로, 이 순간이 동시에 박물관에서의 미적 체험이 된다. 즉, 박물관의 본성을 우리가 이해하면, 박물관 견학은 대상 사물의 순수지선을 이해하며 그것의 아름다움을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배우는 것이다.

2. 『대학』과 『중용』의 감정과학

『대학』과 『중용』은 중국 유가 사상의 저작이다. 『대학』과 『중용』으로 박물관의 미학을 연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다음의 두 가지 이유에서 비롯된다.

- ① 『대학』과 『중용』은 감정과학이다.
- ② ‘박물’은 『대학』의 ‘격물치지’와 『중용』의 ‘박학’에서 나오는 개념이다.

성동권은 『유교문화의 학문 대학의 감정과학』에서 『대학』은 사실상 공자의 감정과학으로 정리했다.

3강령(綱領) · 8조목(條目). 「대학(大學)」이 요약하는 공자(孔子)의 감정과학 (Science of Feelings)입니다. 사실상 공자에 의해 정초된 유교문화의 학문이 무엇인지 간명하게 정리한 것입니다.⁸⁾

박물관의 박(博)과 물(物)의 두 글자 가운데 물이 있기 때문에 먼저 『대학』에서 물(物)에 대응하는 개념, 즉 ‘격물치지’(格物致知)의 개념을 연구하고, 그 결과는 사물의 고유한 본성을 탐구하는 것이다. 감정과학 이해에서의 ‘물’이 무엇을 의미하는

8) 성동권, 『유교문화의 학문 대학의 감정과학』 (부크크, 2022), p. 19.

지 이해해야 한다. 박물관 안의 ‘물’은 보기에는 다양한 종류이고 연관성이 적어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공통점이 있다. ‘물’은 자연의 만물이다. 자연의 ‘물’을 인간이 이용하여 새로운 ‘물’로 만들어 낸다. 이 ‘물’은 인간이 만든 것이지만, 그것은 자기 존재에 관하여 우연이 아니라 필연성을 따른다. 이러한 자연의 만물과 인간이 만든 물품이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으며, 관람객은 이렇게 물을 배우는 것이 격물치지이고, 바로 박물관이다.

성동권은 『유교문화의 미학 중용의 감정과학』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유교문화(儒敎文化)는 ‘감정과학’ (Science of Feelings)입니다. 감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립하는 학문론이 ‘유교’(儒敎)입니다. 그리고 이 학문론은 실질적으로 인간에 대한 올바른 인식입니다. 감정이 곧 인간의 현존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에 대한 타당한 인식으로 감정의 순수지선이 밝혀진다면, 그것은 곧 인간의 순수지선을 증명합니다. 이것으로 인간의 아름다움을 확인하는 것이 유교문화의 ‘중용’입니다. 이 배움에 기초하여 ‘중용’은 인간을 비롯해서 세상 모든 것의 아름다움을 배우자고 합니다. 왜냐하면 존재하는 모든 것은 몸으로 생겨나고 몸이 느끼는 감정으로 자신의 현존재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다 좋은 세상’을 향한 믿음입니다.⁹⁾

그래서 ‘대학’과 함께 ‘중용’은 유교문화 저술로서 감정과학이다. 인간 존재의 아름다움을 감정으로 확인하며, 감정에 대한 적절한 인식은 사실 인간 본성에 대한 적절한 인식이다. ‘중용’에 대한 학습을 통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을 이해하며, 마침내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믿음에 도달한다. ‘중용’의 ‘박’(博)에 해당하는 ‘박학’(博學)은 박물관을 어느 정도 성스러운 학교로서 그리고 사물의 순수지선을 지극히 잘 배우는 학교로 확인한다. 그 결과는 인간정신의 영원을 배운다는 개념이다.

1) 『대학』의 감정과학으로서 격물치지(格物致知)

『대학』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天下之物, 莫不有理.¹⁰⁾

9) 성동권, 『유교문화의 미학 중용의 감정과학』 (부크크, 2023), pp. 12-13.

10) 『大學』, 『傳5』.

이 문장은 세상의 모든 것이 ‘리(理)’를 함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감정과학의 기반에서 이 ‘리(理)’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성동권은 ‘대학의 감정과학」에서 이렇게 설명한다.

세상 모든 ‘감정’ (物)은 자기 존재에 관하여 ‘본성의 필연성’, 즉 ‘리’(理)를 가지고 있으며 오직 그것으로 존재한다고 합니다.¹¹⁾

성동권은 ‘리(理)’를 ‘물(物)’ 자신의 존재하는 본성의 필연성으로 정의한다. 여기서 ‘물(物)’을 ‘감정’으로 정의한다. 장학 박사의 논문에서도 ‘물(物)’이 감정이라는 견해를 확인할 수 있다.

주자(朱子)가 가리키는 물(物)은 신체의 변화와 감정이요¹²⁾

이것이 바로 감정과학에서 ‘물’를 이해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감정의 획득은 우리가 가진 신체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우리 몸의 본성의 필연성은 영원하며, 세대를 거듭해 번식되는 인과 관계이며, 영원하고 무한한 생명과 사랑이다. 그러므로, ‘감정’(물)의 본성의 필연성 역시 영원하고 무한하며, 나 자신에 의해 감정에 대한 나의 이해를 형성한다.

그리고 ‘대학」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한다.

蓋人心之靈，莫不有知.¹³⁾

대개 사람의 마음이 신령한 것이어서 모르는 것이 없고¹⁴⁾

이 문장은 사람의 마음이 신령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사람 마음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무소부지(無所不知)’에 이를 수 있는가? 성동권의 저서 ‘대학의 감정과학」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람의 마음은 자기 안에서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가운데 자기이해 안에서 최고의 완전성으로 명석판명의 인식을 형성한다.¹⁵⁾

11) 성동권, ‘유교문화의 학문 대학의 감정과학. (부크크, 2022), p. 107.

12) 장학, “감정과학에 기초한 주자와 왕양명의 ‘격물치지’ 이론 연구 분석,” 국민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2024), p. 16.

13) ‘大學’, ‘傳5,.

14) 조중빈, ‘자명대학. (부크크, 2023), pp. 179-180.

인간의 마음이 자기인식 능력을 가진다는 것을 말한다. 마음은 자기 스스로 생각과 자기 스스로 이해를 통해 감정에 대한 인식 개념을 형성한다. 박물관에 있을 때, 존재하는 신체를 통해 ‘격물’의 행동을 함으로써, 사실은 마음이 다른 인식에 대해 자기 스스로 생각과 자기 스스로 이해를 통해 박물관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자신만의 생각과 감정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대학」에서 말하는 ‘자명(自明)’이다.

‘대학의 감정과학」에서 ‘격물치지’ 관점을 감정과학적인 시각에서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所謂致知在格物者，言欲致吾之知，在卽物而窮其理也.¹⁶⁾

일찍이 정이(程頤, 1033~1107)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말하자면, 이른바 ‘(몸에 대한) 마음의 타당한 인식은 감정에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은 (몸에 대한) 내 마음의 인식을 타당하게 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감정에 나아가 그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을 이해하는 데에 있다는 뜻이다.¹⁷⁾

‘지’(知)는 사물의 본성에 대한 필연성의 인식을 말하고, ‘이’(理)는 본성의 필연성이다. 이 문장은, 마음은 몸으로 느끼는 감정을 통해 감정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형성하며, 사물의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몸은 몸의 변화된 감정을 통해 감정에 대한 적절한 인식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사물의 고유한 본성적 필연성을 탐구하는 것이 ‘격물치지’(格物致知)이다.

마음은 ‘격물’을 통해, 즉 마음이 자신의 본성에 따라 자신을 생각하고 이해함으로써, 감정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형성하여 ‘치지’라고 한다. 인류는 감정에 대한 자기 이해를 통해 독특하고 지혜로운 우수한 문화 예술의 결정을 창조한다. 이러한 마음의 감정에 대한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은 필연적으로 계속된다. 현대 인류는 이러한 문화 예술의 결정을 직면할 때, 그리고 박물관이라는 전체 공간과 마주할 때, 마음도 자신의 본성에 따라 감정에 대한 자기 생각과 이해를 통해 새로운 의미에서의 생각과 이해를 얻는다.

2) 『중용』의 감정과학으로서 박학(博學)

15) 성동권, 『유교문화의 학문 대학의 감정과학』 (부크크, 2022), p. 102.

16) 『大學』, 『傳5』.

17) 성동권, 『유교문화의 학문 대학의 감정과학』 (부크크, 2022), p. 129.

『중용』에서 감정과학으로 이해하면 다음과 같다.

誠之者, 擇善而固執之者也. 博學之, 審問之, 慎思之, 明辨之, 篤行之. 有弗學, 學之弗能, 弗措也. 有弗問, 問之弗知, 弗措也. 有弗思, 思之弗得, 弗措也. 有弗辨, 辨之弗明, 弗措也. 有弗行, 行之弗篤弗措也.¹⁸⁾

이 문장을 가장 보편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성지자(誠之者)’는 좋은 목표를 선택하고 고집하여 추구한다. 폭넓게 배우고, 심술궂게 묻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분별하여 진실로 행하는데, 이 다섯 가지 행동은 완전한 학습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폭넓게 배우는 것은 여러 분야의 지식을 폭넓게 학습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다음으로 묻는 것은 배운 지식에 대해 깊이 탐구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다음으로는 심술궂게 생각하는 것으로, 배운 지식을 신중하게 고찰하고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분별하는 것은 지식을 판단하고 구별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진실로 행하는 것은 학습한 지식을 확고하게 실천에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이 다섯 가지를 따르지 않는다면, 자신의 부족함을 극복하고 발전할 수 없다.

성동권은 『중용의 감정과학』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문장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번역을 조중빈 선생님의 『자동중용』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느낌 따라 생각해 보고 아는 자[誠之者 = 思誠者 = 묵상]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택하여 고집하는 자이다[내 마음이 사는 방법]. 이는 널리 배우고, ‘하나’님께 자세히 묻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분명하게 판단하고, 죽으나 사나 독실하게 행한다. 배우지 않으면 모를까 배운다고 할 때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모를까 묻는다고 할 때는 모르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 모를까 생각한다고 할 때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며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판단하지 않으면 모를까 판단을 한다고 할 때는 좋은지 싫은지가 분명하지 않다며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모를까 행한다고 할 때는 죽으나 사나 독실하게 행한다.¹⁹⁾

여기에서는 나의 마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강조된다. 즉, 감정에 따라 생각하고 인식을 얻는 것이다. 다양한 지식을 넓게 배우고, ‘하나’에게 물어보고, 스스로를 생각하고 판단하며, 마지막으로 확고하게 실행해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면이 감정에 대한 자기 이해를 실현할 수 없다. 그러면 혼란에 빠져 올바른 감정

18) 『中庸』, 「20章」.

19) 성동권, 『유교문화의 미학 중용의 감정과학』 (부크크, 2023), pp. 255-256.

을 선택하고 이상적인 삶을 구성하는 방법을 모르게 될 것이다.

감정과학이 이 문장을 이해하는 방식과 보통의 이해 방식의 차이는 ‘성지(誠之)’의 해석에 있다. 『중용의 감정과학』에서 ‘성지(誠之)’를 이렇게 설명한다.

誠之者, 人之道也.²⁰⁾

지(誠之)의 지(之)는 성(誠)을 동사로 지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지(誠之)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誠)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중용』의 감정과학은 ‘성’(誠)을 ‘천명지성’(天命之性)으로 이해합니다.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으로 존재하는 단 하나의 실체로서 천(天)이 자기 본성을 따라서 무한한 방식으로 무한하게 몸을 낳으며 동시에 무한한 방식으로 무한하게 감정을 낳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성지’(誠之)가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무한한 감정에 나아가 그것의 본성을 영원의 필연성으로 이해하고, 그것으로 감정을 느끼는 무한한 몸에 나아가 몸의 본성을 영원의 필연성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지(誠之)는 감정을 느끼는 때 순간을 최고의 완전성으로 끊임없이 배워서 이해하는 인간 정신의 축복입니다.²¹⁾

요약하면, 『중용의 감정과학』은 ‘성’(誠)을 ‘천명지성’(天命之性)으로 이해한다. 여기서의 ‘천(天)’은 영원하고 무한한 생명과 사랑 속에 존재하는 유일한 실체를 가리킨다. 천은 본성에 따라 끝없이 몸을 만들어내고 동시에 감정을 끝없이 만들어낸다. 이것이 바로 ‘천명(天命)의 본성’이다. 이러한 이해를 통해 ‘성지(誠之)’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즉, 끝없는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함으로써 그 본성을 영원한 필연성으로 이해하고, 이러한 감정의 끝없는 몸을 느끼는 것을 통해 몸의 본성 역시 영원한 필연성임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지(誠之)’란 인간의 영혼이 감정의 때 순간을 끊임없이 학습하고 이해하는 데에 있어 완벽한 성취이다.

이상의 내용에서 이 문장은 ‘성지(誠之)’의 감정 과학적 개념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며, 감정과 몸 사이의 관계를 강조하며, 감정을 계속해서 학습하고 이해함으로써 내면의 완전성을 달성하는 최종 결과를 강조한다.

『중용의 감정과학』에서 위의 문장을 이렇게 이해한다.

그러므로 ‘성지(誠之)’는 의지력이 아니라 영원의 필연성을 생각하고 배우는 인간 정신의 본질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학, 심문, 신사, 명변, 독행’은 의지력이 아니라 명백하게 이해하는 인간 정신의 성스러움 그 자체입니다. 인간 정신은 알 수 없다는 불가지(不可知)를 절대적으로 용납하지 않으며, 더 나아가 명명백백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명백하게 이해하기 전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이해는 무한하게 변화하는 감정과 그 감정을 느끼는 몸의 무한 변화에 대한 분명한

20) 『中庸』, 「20章」.

21) 성동권, 『유교문화의 미학 중용의 감정과학』 (부크크, 2023), pp. 254-255.

이해입니다. 이 이해가 왜 소중한 것일까요? 이 물음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오직 이 이해만이 감정을 느끼는 우리 자신의 행복을 '영원무한'으로 보증하는 방법이며, 동시에 학문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²²⁾

요약하면, '성지(誠之)'는 의지력이 아니라 영원한 필연성에 관한 생각과 학습이 인간 정신의 본성이다. 그래서 인간 정신의 본성은 영원한 필연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박학, 심문, 신사, 명변, 독행'은 결국 인간 정신의 본성을 명확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이해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성이다. 이는 무한히 변화하는 몸과 무한히 변화하는 감정을 통해 끝없이 생겨나고 변화하는 무한한 존재이다. '박학'에서는 우리가 인간 정신의 영원한 성을 배우고 이해해야 하며, 이러한 영원한 필연성은 무한히 변하는 몸과 무한히 변화하는 감정을 통해 끝없이 존재하고 변화함으로써 모든 것의 '순수지선(純粹至善)'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것은 '박학'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궁극적으로 '대학'의 '격물치지' 개념과 '중용'의 '박학' 개념이 박물관의 기원과 발전, 박물관의 교육기능과 박물관의 미학 의미 등에서 박물관의 존재의 진실, 즉 박물관의 본성과 인간정신의 영원을 탐구한다.

제3절 연구 범위

본 논문의 주제는 감정과학에 기초한 박물관 미학을 연구하는 것이다. 이 목적에 기초하여 1장 서론에서는 무엇보다도 연구의 방법을 명확히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감정과학'(Science of Feelings)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 논문은 감정과학을 이해하기 위하여 유교의 대표 작품인 '대학(大學)', 그리고 '중용(中庸)'을 주요 참고문헌으로 탐구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 범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선행 연구를 통해 세 가지 문제를 제기한다. 첫째, 인류는 무엇 때문에 박물관을 건립하는가? 둘째, 박물관의 교육 기능에 존재하는 부족함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리고 셋째, 어떻게 하면 인류는 박물관에서 더 나은 미학적 체험을

22) 성동권, '유교문화의 미학 중용의 감정과학', (부크크, 2023), p. 256.

할 수 있는가? 감정과학 연구 방법을 통해 인간의 영원한 정신이 박물관을 건립하는 진정한 이유임을 명확히 하였다. 이에 따라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여 박물관의 본질을 확립하고, 박물관을 사물의 본성을 탐구하는 학교로 정의했다. 또한 박물관의 미학적 의미를 인간과 사물 간의 관련성으로 결정했다.

제2장에서는 ‘격물치지(格物致知)’의 일반적인 이해와 감정 과학이 유교 서적인 『대학』에서의 ‘격물치지’ 개념을 이해한다. ‘격물치지’는 감정, 즉 사물 자신의 본성의 필연성이 영원히 무한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 박물관에서는 자기 안에서 자기 이해와 자기 이해를 통해 사물의 본성을 탐구하여 감정에 대한 이해를 형성하고, 사물의 ‘순수지선(純粹至善)’을 이해한다.

제3장에서는 ‘박학(博學)’의 일반적인 이해와 감정 과학을 통해 『중용』에서의 ‘박학’ 개념을 이해한다. 박물관에서 모든 사물의 본성의 필연성을 배운다. 마음은 외부 현상을 설명하지 않고, 자기 안에서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이해하며, 최종적으로 ‘순수지선’을 이해한다.

제4장은 제1장에 대응하여, 인류가 박물관을 건립하는 이유, 교육 기능의 부족을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박물관의 미와 신성을 이해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한다. 박물관의 미학은 인간이 만들어 낸 모든 것의 아름다움을 탐구하는 것이다. 모든 것은 순수지선으로 존재한다. 인간의 감정도 순수지선으로 존재한다. 순수지선으로 존재하는 인간의 감정이 자연의 순수지선을 이해함으로써 그 이해를 표현한 모든 것이 박물관에 있다. 이 사실을 배우는 것이 대학의 격물치지이며 중용의 박학이다.

끝으로 본 논문을 통해서 논자가 주장하고 싶은 핵심 내용으로서 연구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인간의 본성의 필연성을 통해 박물관의 본성을 이해하고, 박물관의 미학적 의미를 밝히는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인간 정신의 영원함을 드러낸다.

제2장 『대학』의 감정과학에 근거한 박물의 물(物) 이해

박물관의 본질을 탐구하고 인간 생명의 영원을 검증하기 위해 이 글은 박물관에서 ‘박(博)’과 ‘물(物)’이라는 두 글자에서 출발하여 감정과학의 관점에 입각하여 박물의 뜻을 해석한다. 박물관은 ‘물(物)’을 저장하는 공간으로서 반드시 ‘물(物)’의 존재를 선행조건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박물관의 본성을 이해함에 있어서 ‘물(物)’의 개념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은 이 목적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중국 유가사상의 저서 ‘대학」이 제시한 ‘격물치지(格物致知)’를 연구 방법으로 채택한다. 이 장은 중국 현대학자의 ‘격물치지(格物致知)’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 『대학의 감정과학』으로 이해한 ‘격물(格物)’과 ‘치지(致知)’를 자세히 설명하고 감정과학의 기초에서 ‘물(物)’의 의미를 이해하겠다. 그 결과 사물 자체의 본성을 명확히 인식한다면, 그것으로 박물관의 본성을 확인할 수 있다.

제1절 격물치지(格物致知)에 대한 일반 이해

‘격물치지(格物致知)’의 개념에 관하여 왕서금(王緒琴)은 ‘격물치지론의 원류와 그 근대적 변형」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격물(格物)과 치지(致知)의 이 두 범주는 ‘예기·대학」에서 처음 볼 수 있다. ‘대학」은 유가의 중요한 저작이다. 그것은 유가의 수신치국평천하에 관한 이론을 중점적으로 천명하였는데, 그중 한 단락은 다음과 같다.

“大學之道, 在明明德, 在親民, 在止於至善……致知在格物。物格而後知至, 知至而後意誠, 意誠而後心正, 心正而後身修, 身修而後家齊, 家齊而後國治, 國治而後天下平。”

이 단락을 요약하면 이른바 ‘3강령’과 ‘8개 항목’의 유교 수양 이론이다. 세 가지 강령은 공명덕, 친민, 지선에 그치는 것을 말하며, 유자가 도달해야 할 이상적인 경지를 제정한다. 8개 항목은 격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 지가, 치국, 평천하를 의미하며, 제정된 것은 이러한 이상적인 경지에 도달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이다. ‘격물’과 ‘치지’는 여덟 항목 중 앞의 두 단계로, 격물과 치지가 수신(修身)의 기초임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기초적인 지위 때문에 ‘유자 제일의 요의’로 여겨져 유학의 핵심 개념이 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³⁾

23) 왕서금(王緒琴), ‘格物致知論の源流及其近代轉型(격물치지론의 원류와 그 근대적 변형)’, (自然辯證法通訊(자연 변증법 통신), 2012), pp. 94-95.

요약하면, ‘격물’과 ‘치지’는 유가 사상의 8대 항목 중 핵심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유교 수양 이론의 8개 항목에는 ‘격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 치가, 치국, 평천하(格物、致知、誠意、正心、修身、齊家、治國、平天下)’가 포함되며, 그 중 ‘격물’과 ‘치지’는 다른 단계와 방법의 기초를 다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3강령’과 ‘8개 항목’도 최종 요지로 ‘대학」을 관통한다. 최초의 ‘대학」에서 제안되고 이후 진화 과정에서 주희와 같은 많은 학자들이 이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추가하고 깊이 해석하고 재정의했으며 ‘격물치지’라는 개념은 유교 사상에서 끊임없이 발전하고 풍부해졌으며 점차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었다.

다음은 ‘격물치지’에 대한 여러 현대 학자들의 일반적인 이해이다.

1. 우관치(伍觀淇)의 ‘본말선후(本末先後)’

펑야오광(彭耀光)은 「우관치 ‘대학」고본 ‘격물치지’ 해설」에서 현대 학자 우관치(伍觀淇)의 ‘격물치지’ 개념에 대한 이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4절은 3절의 전개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오 선생이 보기에 3절의 ‘물유본말(物有本末)’이라는 ‘물(物)’은 4절의 ‘천하(天下)’, ‘국가’, ‘신(身)’이고, 3절의 ‘사유종시(事有終始)’라는 ‘사(事)’는 4절의 ‘수(修)’, ‘치(齊)’, ‘치(治)’, ‘평(平)’이다. 따라서 격(格), 치(致), 성(誠), 정(正), 수(修), 치(齊), 치(治), 평(平)의 팔목 사이는 모두 본말의 선후 관계이며, 소위 ‘격물치지(格物致知)’는 이러한 사물의 본말의 선후 관계에 대한 인식이다. 오 선생은 “제가 보기에 『대학』에서 말하는 격물의 ‘물’은 윗글의 ‘물유본말’의 물건이고, 치지의 ‘지(知)’는 곧 ‘지소선후(之所先後)’의 지이다. 위의 문명은 분명하고, 관련성이 있으므로 달리 해석해서는 안 된다.” 또 “따라서 소위 ‘물’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 국가, 몸이라는 큰 사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소위 ‘지’라고 하는 것은 그간의 본말의 전후의 큰 조리를 밖에서 알지 못한다, 수·제·치·평정 소위 ‘사’라고 하는 것이다. 수신(修身)은 일의 시작이고, 치평(治平)은 일의 끝이다. 단지가 사이의 물건의 본말과 일의 종말을 알아내기만 하면, 바로 ‘물격이지지(物格而知

※ 인용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格物與致知這對範疇,最早見於「禮記·大學」。「大學」是儒家的一篇重要的著作。它重點闡發了儒家關於修身治國平天下的理論,其中有一段說道:“大學之道,在明明德,在親民,在止於至善……致知在格物。物格而後知至,知至而後意誠,意誠而後心正,心正而後身修,身修而後家齊,家齊而後國治,國治而後天下平。”這一段概括起來即所謂的“三綱領”與“八條目”的儒家修養理論。三綱領是指明明德、親民、止於至善,它制定的是儒者應該達到的理想境界。八條目是指格物、致知、誠意、正心、修身、齊家、治國、平天下,制定的則是要達到這一理想境界的具體步驟和方法。“格物”與“致知”是八條目之中的前兩個步驟,可以看出,格物與致知是修身的基礎,也正是因為它們的這種基礎性地位,故被視為“儒者第一要義”,逐漸成了儒學的核心概念。

至)’이다. 오 선생이 말한 ‘물격이지지’, 즉 이 장의 5절에서 말한 ‘이것을 지본이라 하고, 이것을 지본이라 합니다’이다.²⁴⁾

위에 따르면 ‘본말선후(本末先後)’는 우관치의 ‘격물치지’에 대한 최종 이해이다. 소위 ‘격물치지’는 이러한 사물(즉, 몸, 집, 나라, 천하, 수, 제, 치, 평)의 앞뒤 관계에 대한 인식이다. 우관치는 ‘물’을 ‘물은 본말이 있다’고 이해하며, 천하, 국가, 몸을 바라보는 큰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지’를 인지하는 것 사이의 전후의 주요 조리(條理)로 인식한다. 물격이지지(物格而知至)는 수신(修身)을 일(修·齊·治·平)의 시작으로 치평(治平)을 일(修·齊·治·平)의 끝자락으로 삼고 그동안의 ‘물’의 본말, ‘사(事)’의 끝자락을 모두 정리한 이상상태이다.

평야오광(彭耀光)은 우관치(伍觀淇)가 ‘대학’의 고본 ‘격물치지(格物致知)’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내놓기도 한다.

‘격물치지’가 사물의 본말의 선후관계에 대한 인식임을 설명하기 위해 오 선생은 또 ‘격’자를 새롭게 새겼다. 오 선생은 “격물의 ‘격’자를 ‘설문(說文) 상훈을 ‘목장모’라고 한다. 나무의 장사나 생기는 그 전체로 통하지만, 그 생장은 근본부터 끝까지 그 순서가 있다. ‘나무의 생김새’는 나무가 본에서 말기까지 자라는 상황을 의미한다. 그래서 사물을 근본과 말단에서 층층이 발전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격물’이다. 지식은 사물의 반영이며, 사물의 정리는 이렇고, 그대로 반영하면 틀림이 없는 것이 바로 ‘지지(知至)’이다.” 전현래·지·정·감 등의 의훈인 ‘격’과 달리 오 선생은 ‘설문’의 훈석을 채택하여 이를 발휘하여 ‘격물치지’가 사물(신체·가·국·천하·수·제(齊)·치(治)·평)의 본말(本先後)의 선후 관계에 대한 인식임을 설명하는데, 이는 오 선생의 독특한 방법으로 전례가 없다.²⁵⁾

24) 평야오광(彭耀光), 『伍觀淇 大學 古本“格物致知”解(우관치 大學 고본 ‘격물치지’ 해설)』(齊魯文化研究(치루 문화 연구), 2009), p. 140.

※ 인용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既然第四節是對第三節的展開說明,所以在伍先生看來,第三節中所謂“物有本末”的“物”,即是第四節中的“天下”、“國家”、“身”;而第三節所謂“事有終始”的“事”,即第四節的“修”、“齊”、“治”、“平”。所以,格、致、誠、正、修、齊、治、平的八目之間都是一種本末先後的關係,而所謂“格物致知”,即是對這些事物本末先後關係的認知。伍先生說:“我看<大學>這裏說的格物之‘物’,即上文‘物有本末’之物;而致知之‘知’,亦即‘知所先後’之知。上文下文明明白白,扣合相關,不應另尋解釋。”又說:“故其所謂‘物’者,不外指目著天下、國家、身這一大事物;其所雲‘知’者,則不外知得其間本末先後的一大條理;修、齊、治、平正所謂‘事’。修身爲事之始,治平爲事之終。只需把這其間物的本末、事的終始弄明白,便是‘物格而知至’了。”伍先生所說的“物格而知至”,即是本章第五節所說的“此謂知本,此謂知之至也”。

25) 평야오광(彭耀光), 『伍觀淇 大學 古本“格物致知”解(우관치 大學 고본 ‘격물치지’ 해설)』(齊魯文化研究(치루 문화 연구), 2009), p. 140.

※ 인용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爲了說明“格物致知”是對事物本末先後關係的認知,伍先生又對“格”字做了新的詮解。伍先生說:“格物的‘格’字,<說文>上訓爲‘木長貌’。樹木的生意或生氣,固通乎其整體,然其生長卻由本及末,有其順序。‘木長貌’應即樹木由本及末那生長的情形。所以把事物由本及末層層發展的情形表露出來,亦即爲‘格物’了。而知識爲物之反映,事物情理是這樣,照樣反映無誤,亦即爲‘知至’。”與前賢以來、至、正、感等義訓“格”不同,伍先生采<說文>的訓釋並加以發揮,由此說明“格物致知”是對事物

우관치는 또한 ‘격물치지’의 ‘격’자에 새로운 정의를 부여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일과 사물을 근본과 말단에서 층층이 발전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격물(格物)’이라고 생각한다. 지식은 사물의 반영이고 사물의 정리는 이러하며, 그대로 반영하면 틀림이 없는 것이 ‘지지(知至)’이다. 요컨대 평야오광은 우관치가 ‘설문’을 통해 ‘격’을 새롭게 해석한 것에 대해 자신이 ‘격물치지’의 해석에 대해 인정과 찬성을 표명했음을 설명한다.

또한 평야오광은『우관치 '대학' 고본 '격물치지' 해설』에서 우관치와 주자가 ‘격물치지’ 개념에 대해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고 언급한다.

‘격물치지’에 대한 오 선생의 이해가 주자와는 전혀 다른 것이 분명하다. 주자는 『대학장구』에서 ‘격물치지전’을 보필하여 ‘치지재격물자는 언욕치지오지지지가 즉 물이지 그 도리를 궁구한다.’ 또 ‘대학으로 가르치면 학자 즉 무릇 천하의 물건들이 모두 자기의 지식에 의하여 익궁하여 지극히 지극히 구하게 될 것이다. 오랫동안 힘을 썼지만 일단 확연히 관통하면, 여러 물건의 겉은 모두 세련되고 겉은 내 마음 전체는 다 잘 쓰이다. 이것을 물격이라 하고, 이것을 지당하다고 한다.’ 주자가 격물치지(格物致知)를 즉 물면궁지(物面其之)라 한 것은 오 선생의 해석과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주자가 말하는 ‘물건’은 오 선생이 말한 ‘대학’ 중의 몸, 집, 나라, 천하가 아니라 천하의 모든 물건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지지는 모든 물건의 겉과 속이 정밀한 지식에 관한 것이지, 오 선생이 말한 몸, 집, 나라, 천하의 본말에 대한 선후지식이 아닌 것은 분명 너무 광범위하여 ‘대학’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오 선생이 비판한 것은 “주자는 천하의 물리학을 극한 후에 ‘지’가 되어야 한다.”²⁶⁾

위의 글에서 평야오광은 주자가 말하는 ‘물(物)’이 우관치가 점찍은 ‘대학’의 몸, 집, 나라, 천하가 아니라 천하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치지(致知)는 우관치가 말한 몸, 집, 나라, 천하 본말의 선후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많은 물건들의 겉과 속이 정밀한 지식이다. 평야오광과 우관치는 ‘천하 사물이 도리를 구한다’는 개념에 대해 주자의 말이 너무 광범위하여 ‘대학’ 본래의 취지를 잃다고

(身、家、國、天下;修、齊、治、平)本末先後關係的認知,這是伍先生的獨特做法,前所未有的。

26) 평야오광(彭耀光),『伍觀淇 '大學' 古本“格物致知”解(우관치 '대학' 고본 '격물치지' 해설)』(齊魯文化研究(치루 문화 연구), 2009), p. 140.

※ 인용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很明顯,伍先生對“格物致知”的理解與朱子完全不同。朱子在〈大學章句〉中補“格物致知傳”說:“所謂致知在格物者,言欲致吾之知在即物而窮其理也。”又說:“是以〈大學〉始教,必使學者即凡天下之物莫不因其已知之理而益窮之,以求至乎其極。至於用力之久而一旦豁然貫通焉,則衆物之表裏精粗無不到,而吾心之全體大用無不明矣。此謂物格,此謂知之至也。”朱子解“格物致知”爲“即物面窮其理”,此與伍先生的解釋相近但又不同。因爲朱子所謂的“物”,非如伍先生所點出的〈大學〉中的身、家、國、天下,乃是天下所有之物;而由此所致之知,乃是關於衆物表裏精粗之知識,而非伍先生所說的對身、家、國、天下本末先後之知,這些都顯然太過寬泛,於〈大學〉無據,所以伍先生批評說:“朱子要人窮極天下之物理而後爲‘知至’,未免離題太遠,非〈大學〉原文本旨。”

비판한다.

주자의 ‘격물치지’에 대한 이해는 ‘대학장구’에 많이 반영되어 있다. 감정과학의 이해에서 주자의 ‘격물치지’도 감정과학 연구의 범주에 속한다.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사물에 대한 이해이다. 이 부분은 논문의 ‘2절 감정과학의 격물치지’에서 자세히 다루겠다.

2. 서수(徐壽)의 ‘격물치지’관

장맹(張孟)은 ‘서수 ‘격물치지’ 사상탐구’에서 ‘격물치지’의 개념에 대한 서수의 이해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서수에서 ‘격물치지’는 고대 경험 과학 기술 개념에서 현대 기물 과학 기술 개념으로의 전환을 실현하는 새로운 통찰력을 얻는다. 1874년 서수는 ‘격치서원 창당설론’에서 ‘설교하는 법은 고금이 다르고 중국과 외국이 다르지만 격치의 학문은 하나이다. 그러나 중국은 소위 격식이라 하여, 성정치평(誠正治平)이라 하고, 외국은 소위 격식이라 하여 변화제조(變化造造)라고 한다. 중국의 격식은 공로가 허무에 가깝고, 허황된 것은 항상 위선적이며, 외국의 격식은 공로를 인정하지만 사실은 모두 진실이다.’ 이와 같이 중국과 서양의 ‘격치’ 사이에 허실, 진위 등 형이상학 이원적 패턴이 초기에 확립된다. 서수이는 중국과 서양 문화가 격돌하는 시대의 대결에 서서 전통 유가의 ‘격물치지’와 서양 과학기술의 차이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는데, 이는 국가적 위기에 직면하여 민족적 위기에 직면했을 때 전통 문화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서두르는 새로운 유형의 지식인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서수의 ‘격식’ 사상은 전통적인 유교 ‘성정, 치평, 수신, 치천하’의 이해와 다를 뿐만 아니라 ‘격식’과 서양의 ‘과학기술’ 개념의 동시대 중국인들의 혼동과도 다르다. 그는 중국과 서양의 ‘격식’의 차이점을 명확히 제시하고 ‘격식’ 개념에 대한 중국인의 이해 편차가 우리나라 과학 기술이 낙후된 핵심 원인이라고 생각한다.²⁷⁾

위의 인용을 바탕으로 분석하면, 서수의 ‘격물치지’에 대한 설명은 중국의 전통적

27) 장맹(張孟), “徐壽‘格物致知’思想探究(서수 ‘격물치지’ 사상탐구),” 山東師範大學校(산둥사범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2021), pp. 1-2.

※ 인용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而在徐壽那裏, “格物致知”得到了新的闡發, 實現了從古代經驗科技觀到近代器物科技觀的轉變。1874年, 徐壽在《擬創建格致書院論》中曾說: “惟是設教之法, 古今各異, 中外不同, 而格致之學則一。然中國之所謂格致, 所以誠正治平也; 外國之所謂格致, 變化製造也。中國之格致, 功近於虛, 虛則常僞; 外國之格致, 功征於實, 實則皆真也”。如此, 就在中西“格致”之間初步建立了虛實、真僞等形而上和形而下的二元格局。徐壽站在中西文化激烈碰撞的時代交鋒之處, 犀利的指出傳統儒家“格物致知”與西方科學技術的差別所在, 這是一種面對國家危難、民族危亡時急於擺脫傳統文化束縛的新型知識分子的典型特征。徐壽的“格致”思想既不同於傳統儒家“誠正、治平、修身、齊天下”的理解; 也區別於同時期國人對於“格致”與西方“科技”概念的混淆。他明確提出中西“格致”差別所在, 並認為國人對“格致”概念理解的偏差是導致我國科技落後的關鍵原因。

인 유가 사상과 다르다. 대신 그는 현대적 관점에서 자신을 포지셔닝하고 서구의 기술 진보 개념과 융합하고 충돌하는 경향이 있다. 서수는 유가의 격물치지(格物致知)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를 ‘성(誠)·정(正)·치(治)·평(平)’으로 요약한다. 대조적으로, 그는 서양의 ‘격물치지’ 개념을 기술의 변화와 제조 과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는 형이상학과 형이하학 분야에서 중국과 서양 문맥의 ‘격물치지’ 관점에서 추상화와 구체성, 참과 거짓의 차이와 같은 이중 구조를 도입한다. 서수는 중국 기술의 후진적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격물치지’ 개념에 대한 중국과 서양의 해석 차이를 분명히 지적한다. 이러한 관점을 통합하고 대조함으로써 그는 그 시대의 기술적 도전에 대응하고 중국의 과학 기술 발전에 기여하려고 한다.

서수는 이처럼 격물치지(格物致知)를 내세우는 가장 큰 이유는 서수가 처한 시대적 배경은 국가적 위난과 민족적 위망에 직면하여 전통문화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서두르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서수씨의 일대기를 소개한 약술이다.

서수는 1818년 2월 26일 중화민족의 내우외환의 전 시기를 겪으며 민족의 위기와 국가의 쇠퇴에 직면하여 과학기술 구국의 중요성을 깊이 느꼈다. 1840년 이래 계속되는 전쟁으로 서수는 ‘견선리포(堅船利炮)’의 위력을 깨닫고 서양에서 과학 기술을 배우고 실천하기 시작했다. 1845년 서수는 해양 인간 기계 공장을 방문하여 ‘양인의 모든 차, 연마, 대패, 회전, 단조, 주조, 용접, 심지어 페인트 칠, 청소 및 기타 방법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이때 서양 과학 기술에 대한 현장 관찰을 통해 쉬수이에게 새로운 과학 기술 영역을 열었고 중국과 서양의 과학 기술 간의 차이를 초기에 깨닫고 중국과 서양의 ‘격식’ 차이점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²⁸⁾

청나라 말기에 폐쇄된 후 강제로 문을 열었고, 중국 정부 관리들은 마침내 서양인들과 기술 격차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많은 새로운 지식인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시대에 발맞추며 과학 기술의 국가 구제를 중요한 위치에 놓았으며 서수도 그 중 하나이다. 그는 중국과 서양의 ‘격물치지’의 차이를 명확히 제시하고 과학기술의 창조를 ‘진(眞)’로 ‘실(實)’로 간주하며, 실제 학습만이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당시 내우외환의 국가와 민족을 구할 수 있다고 믿는다.

중국과 서양의 ‘격물치지’의 차이에 대한 서수의 구체적인 이해와 관련하여 장명

28) 장맹(張孟), “徐壽‘格物致知’思想探究(서수 ‘격물치지’ 사상탐구),” 山東師範大學校(산둥사범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2021), p. 12.

※ 인용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徐壽生於1818年2月26日，經歷了中華民族內憂外患的整個時期，面對民族危機、國家衰敗，他深切感受到科技救國的重要性。自1840年以來，接連不斷的戰火，使得徐壽意識到“堅船利炮”的威力，開始向西方學習並實踐科學技術。1845年，徐壽參觀上海洋人機器廠“細察洋人的一切車、磨、刨、鑄、鍛、鑄、焊，甚至於塗漆、清洗等方式.....”。此時，通過對西方科技的實地觀測，為徐壽打開了一個全新的科技視域，初步意識到中西科技之間存在的差距，開始思考中西“格致”的差異之處。

은 '서수 '격물치지' 사상탐구'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러나 서수의 '격치(格致)' 사상은 서양의 과학 기술 개념을 포괄하고 완전하고 포괄적인 '격치(格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격치편집서'에서 서수는 '천문, 지리, 산수, 기하학, 역예, 제기, 화학, 지학, 금광 및 무비 등 실용자에게 적용할 수 있다. 서수는 구식 '격식'에서 근대 '과학'으로의 과도함을 실현하고 '격식' 시스템을 단일화 및 기물화에서 심층적이고 다양한 이해로 전환했음을 알 수 있다. 『격치집성서』(格致彙編序)는 서양 과학 시스템과 자연 과학 시스템을 포괄할 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이 서양 현대 자연 과학의 체계적 윤곽과 학문적 분류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도록 자극하여 유신파가 '과학' 개념을 도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²⁹⁾

위에 따르면 서수는 중국과 서양의 '격물치지'의 차이를 비교하고 일반화할 뿐만 아니라 서양 과학 기술의 개념 정의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그는 과학 기술이 천문, 지리, 산수, 기하학, 기술, 제기, 화학, 지학, 금광 및 군사 장비 등을 포함할 수 있다고 믿으며 이는 완전하고 포괄적인 대규모 시스템이다. 어느 정도는 '물'에 대한 그의 이해이기도 하다. 그는 서구의 '과학' 개념을 중국에 도입하고 기물의 단일화에서 시스템의 다양화로 전환하여 '허실(虛實)', '진위(眞僞)'와 같은 독특한 인식을 실현한다.

서수의 '격물치지' 사상은 국가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중국의 전통 사상을 서구의 진보 사상에 비교하고 자신의 새로운 이해를 제시하며 당시 중국의 변하지 않는 낡은 사상에 새로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구국의 새로운 실천을 모색하는 것이다. 비록 서수(徐壽)의 '격물치지(格物致知)'의 이념은 중국 유가 사상이 표현하고자 하는 내재적 의미로부터 벗어나 있지만, 오늘날 중국의 과학 기술 발전에도 한몫을 한다.

3. 백종양(白宗讓)의 '집양용중(執兩用中)'

백종양(白宗讓)은 「『예기·대학』 '격물치지' 신해」에서 '격물치지' 개념에 대한 그

29) 장맹(張孟), “徐壽‘格物致知’思想探究(서수 '격물치지' 사상탐구),” 山東師範大學校(산둥사범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2021), p. 38.

※ 인용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然而, 徐壽“格致”思想全面囊括西方科技概念, 致力於建立一個完整全面的“格致”體系。在《格致彙編序》中徐壽表明: “可施諸實用者, 如天文、地理、算數、幾何、力藝、制器、化學、地學、金礦、武備等, 此大宗也, 其餘藝術尚有多端, 筆難盡數”。由此可見, 徐壽實現了從舊式“格致”向近代“科學”的過度, 將“格致”體系從單一化、器物化的認識轉向了深層次、多元化的理解。在《格致彙編序》中不僅涵蓋了西方科學體制及自然科學建制, 還促使國人對西方近代自然科學的體系輪廓以及學科分類有了一定了解, 為維新派引進“科學”概念奠定基礎。

의 이해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격물’의 주체는 필연적으로 사람이며, ‘물’은 곧 사(事)이며, 『예기·대학』(禮記·大學)의 ‘물에는 본말이 있고, 일은 끝이 있다’로 볼 때, ‘격물’은 사물의 양끝에서 추론하고, ‘지’는 ‘지소(知所)의 선후(先後)를 알면 가깝다’이다. 세상의 사물은 모두 찬반양면을 가지고 있으며, 이 대립은 서로 감응할 수 있으며, 『역전·象傳·鹹』에서 “짜다, 감이다. 부드럽고 강하며, 두 기운은 서로 맞아야 한다. 하녀는 헨리정으로 여길야를 취한다. 천지는 만물이 되고, 성인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천하가 평화롭다. 그 느낌을 보면 천지 만물의 정을 알 수 있다. 『예기·대학』의 ‘치지(致知)’는 ‘지본(知本)’, ‘지지지(知之至)’이며, 『예기·중용』(禮記·中庸)은 ‘중자천하지대본(中也者天下之大本)’, ‘중용지지호(中庸其至乎)’라고 하며, ‘치지’와 ‘중’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격물치지’는 ‘집양용중(執兩用中)’의 또 다른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격물’은 ‘하나의 사물’과 ‘두 개체’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여 본질(중)에 도달한다.³⁰⁾

요약하면, 백종양이 ‘격물치지’에 대해 이해하도록 한 것은 사실 ‘집양용중(執兩用中)’이다. 사람을 격물(格物)의 주체로 하여 ‘물(物)’을 사(事)로 이해하고, ‘격물(格物)’의 의미는 사물의 양끝을 추궁하는 것이며, ‘치지(致知)’는 ‘지본(知本)’, ‘지지지(知之至)’로 이해하는데, 이는 『예기·중용』에서 언급한 ‘중자천하지대본(中也者天下之大本)’과 ‘중용지지호(中庸其至乎)’에 해당한다. 결국 백종양은 ‘격물치지’를 ‘집양용중’의 또 다른 해석방식으로 삼았고, ‘사물’의 양면성에 주목하여 결국 ‘지’, 즉 ‘중’(중용의 지혜)의 본질적인 인식에 도달한 것으로 이해하게 된다.

백종양(白宗讓)은 『예기·대학』 ‘격물치지’ 신해에서 제시한 ‘격물치지’의 개념은 주자와 양명의 해석을 결합하여 각각 유교 학설인 ‘집양용중’의 지식론과 덕성론의 이중 진로를 대표한다.

따라서 ‘격물치지’는 『예기·대학』의 ‘삼강령’의 ‘명명덕’의 ‘자명함’이며 주관과 객관이라는 이중적인 노력 차원을 가지고 있다. ‘치지’의 ‘지’는 양심과 지식을 모두 포함하며 둘 다 ‘격물’에서 파생되며 ‘격물’은 주체에게 사심 없는 ‘성(誠)’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사물의 이치에 대한 궁구도 요구한다.³¹⁾

30) 백종양(白宗讓), 『《禮記·大學》 ‘格物致知’新解(《예기·대학》 ‘격물치지’ 신해)』(寶雞文理學院學報(社會科學版)(보계문리과대학 학보(사회과학관)), 2019), p. 11.

※ 인용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格物”之主體必然是人, “物”即事, 從《禮記·大學》“物有本末, 事有終始”來看, “格物”即從事物的兩端來推究, “致知”即“知所先後, 則近道矣”。世間事物皆具正反面, 此對立兩者之間能夠互相感應, 《易傳·象傳·鹹》曰: “鹹, 感也。柔上而剛下, 二氣感應以相與。止而說, 男下女, 是以亨利貞, 取女吉也。天地感而萬物化生, 聖人感人心而天下和平。觀其所感, 而天地萬物之情可見矣。”《禮記·大學》之“致知”即是“知本”“知之至”, 《禮記·中庸》曰“中也者天下之大本”“中庸其至乎”, 說明“致知”與“中”有密切關係。因此, “格物致知”可以看作是“執兩用中”的另一種表述。“格物”即“觀”“一物”之中“兩體”之關係, 從而達致其本質(中)。

31) 백종양(白宗讓), 『《禮記·大學》 ‘格物致知’新解(《예기·대학》 ‘격물치지’ 신해)』(寶雞文理學院學報(社會科學版)(보계문리과대학 학보(사회과학관)), 2019), p. 12.

결론적으로 백종양은 자신의 사상체계를 구축하면서 주자의 ‘자명’, ‘궁기리’와 같은 이념을 교묘하게 융합시켰고, ‘주관’, ‘양지’와 같은 왕양명의 개념을 흡수하여 ‘격물치지’에 새로운 정의를 불어넣는다. 그러나 이 정의는 너무 광범위해 보일 수 있다. 앞의 분석을 통해 백종양은 결국 그의 관점을 ‘집양용중’으로 규정하고 ‘중용’의 중요성을 강조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그가 전하려 했던 진리는 평형 상태에서 찾으려는 것 같다. 그러나 이 균형은 주관성과 객관성, 내부와 외부 사이에 있으며 명확한 정착점이 없다. 백종양은 ‘격물(格物)’을 ‘물(物)’의 양면성을 이해하고, 마침내 ‘지지(致知)’의 중도를 달성하는 것으로 표현하며, 이는 그가 생각하는 ‘물(物)’의 본질이기도 한다. 그러나 감정과학의 이해에서, 사물이 추구하는 ‘리(理)’는 필연성을 의미한다. 이해는 이후 구체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제2절 감정과학의 격물치지(格物致知)

1. 선행 연구 비판 및 문제제기

위의 현대 학자들의 ‘격물치지’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에 따르면, 이러한 학자들은 ‘격물치지’에 대한 이해가 너무 광범위하거나 유가 사상의 내재적 의미를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격물치지’의 개념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① ‘격물치지(格物致知)’의 주체는 무엇인가?
- ② ‘격물치지(格物致知)’의 ‘물(物)’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 ③ ‘격물치지(格物致知)’의 ‘물(物)’과 박물관의 ‘물(物)’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위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해 우리는 감정 과학을 통해 구체적으로 해석할 것이다.

1) ‘격물치지(格物致知)’의 주체

※ 인용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所以, “格物致知”即是《禮記·大學》“三綱領”之“明明德”之“自明”, 兼具主觀與客觀雙重工夫論維度。“致知”之“知”既包含良知, 也包含知識, 二者都來自“格物”; “格物”既要求主體無私無蔽之“誠”, 也要求對事物之理的窮究。

위의 백종양은 「예기·대학 ‘격물치지’ 신해」에서 ‘격물치지’의 주체가 인간이라고 언급하였다³²⁾. 즉, ‘격물치지’라는 행위는 인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격물치지’의 주체는 인간이며, 동시에 박물관을 관람하는 행위의 주체도 인간이므로, 이들은 연관성을 갖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인간의 존재를 입증하는가. 우선적으로는 신체의 존재를 통해 나, 즉 ‘나’의 존재를 입증한다.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낳았고, 나는 신체를 소유하고 있으며, 신체의 변화를 통해 감정을 얻었으며, 또한 인간의 본성으로 인해 나의 마음은 자기 생각과 이해의 능력을 갖게 되었다. 그러므로 ‘격물치지’의 진정한 주체는 나 자신, 나의 마음이다.

2) ‘격물치지(格物致知)’의 ‘물(物)’

위의 우관치는 ‘물’을 ‘물에는 본과 말미가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며, 이는 천하, 국가, 몸과 같은 대규모의 사물을 가리킨다. 반면에 서수는 ‘물’을 기술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하며, 기술은 천문학, 지리학, 산수, 기하학, 역예, 제기, 화학, 지학, 광산, 무비 등을 포함한 큰 체계다. 이러한 ‘물’들은 크고 넓은 범위를 갖고 있다. 그리고 감정과 과학의 관점에서 볼 때, ‘물’은 몸의 변화, 즉 감정을 가리킨다. 우리가 박물관에서 사물을 이해하고 학습함으로써, 그것들의 본질을 찾는 것은 사실 몸의 감정의 본성을 찾는 것이다.

3) ‘격물치지(格物致知)’의 ‘물(物)’과 박물관의 ‘물(物)’의 연관성

우리는 박물관 안의 ‘물’이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 박물관 안의 ‘물’은 보기에는 다양한 종류이고 연관성이 적어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공통점이 있다. ‘물’은 자연의 만물이다. 자연의 ‘물’을 인간이 이용하여 새로운 ‘물’로 만들어 냅니다. 이 ‘물’은 인간이 만든 것이지만, 그것은 자기 존재에 관하여 우연이 아니라 필연성을 따른다. 인간은 이 세상 자연의 만물에 자신만의 감정을 더해 새로운 물건을 창조하며, 독특한 ‘물’의 존재를 형성한다. 이러한 자연의 만물과 인간이 만든 물품이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으며, 관람객은 이렇게 물을 배우는 것이 격

32) 본 논문의 2장, 제1절 격물치지(格物致知)에 대한 일반 이해, 3.백종양(白宗讓)의 ‘집양용중(執兩用中)’에서 다루었다.

물치지이다. 관람객은 마음을 통해 감정을 이해하며, 박물관에서 이러한 물건을 학습함으로써, 인간의 감정을 배우는 것이다.

다음 내용은 감정과학을 활용하여 『대학』에 나오는 ‘격물치지’ 개념을 해석하고, 이를 ‘격물’과 ‘치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이해하며, 성동권의 『대학의 감정과학』을 분석하고 이해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박물관의 자연의 ‘물’과 인간의 감정,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 내는 물건 사이의 상호작용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박물관을 사물의 본성을 탐구하고, 사물의 ‘순수지선(純粹至善)’을 이해하는 장소로 인식할 수 있다.

2. 『대학의 감정과학』으로 이해하는 격물(格物)

먼저, 『대학의 감정과학』으로 이해하는 격물의 ‘물’은 구체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다. 격물의 ‘물’은 자연의 모든 사물이며 동시에 인간이 만든 물건이다. 또한, ‘물’은 ‘물자체(物自體)’의 본성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점이다.

1) 자연의 모든 사물

『대학의 감정과학』에 의하면 격물의 物은 자연의 모든 사물이다. 성동권은 『대학의 감정과학』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논리적으로 완벽할 뿐만 아니라 공자의 학문이 추구하는 배움의 진실을 명백하게 밝혀준 문서는 오직 주자의 『대학』입니다.³³⁾

서론에서 언급한 대로, 공자의 학문은 사실 감정 과학의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성동권은 주자가 『대학』의 견해를 통해 공자의 학문을 학습하고 밝히는 것이 정확하고 명확한 감정 과학의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기반으로 주자가 ‘물’의 이해를 탐구할 것이다. 즉, 격물의 ‘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사할 것이다.

주자는 『대학장구』에서 ‘물’에 대한 이해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格, 至也. 物, 猶事也. 窮至事物之理, 欲其極處無不到也.³⁴⁾

33) 성동권, 『유교문화의 학문 대학의 감정과학』 (부크크, 2022), p. 268.

격(格), 이른다. 물(物), 마치 사물(事物) 같다. 사물의 리(理)를 궁극적으로 파악하려면, 그 극한에 이르어 아무것도 놓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주자가 ‘격물’에 대한 이해를 언급하고 있다. ‘물’은 물건으로 이해할 수 있고, 또한 세상의 만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모든 존재의 존재물로 이해될 수 있다. 사물의 본질, 즉 ‘리(理)’를 탐구하고 학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며, 사물의 극한 지점에 이르고자 하는 열망이 어디에도 미치지 못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또한 이것은 주자의 ‘격물치지’ 관념에서 ‘리(理)’의 중요성을 나타냅니다.

「주자어류」에서도 주자가 ‘물’에 대한 이해에 관한 글이 있다.

蓋天下之事，皆謂之物。³⁵⁾

세상 모든 일을 물(物)이라고 말한다.

여기에서는 천하의 일들이 모두 ‘물’로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박물관에서의 ‘물’에 대한 이해는 세상의 모든 사건과 모든 사물로 정의할 수 있다. ‘물’은 단일한 개체뿐만 아니라, 맨눈으로 볼 수 있는 사물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 자연의 모든 사물을 말할 수 있으며, 또한 인간의 신체나 신체의 변화를 통해 발생하는 감정까지를 포함한다. 이러한 사물들은 서로 연결되고 상호 작용하여 세계라는 거대한 전체를 형성한다.

2) 인간이 만든 모든 물건

격물의 物은 자연의 모든 사물이며 동시에 인간이 자신의 감정을 따라서 만들어 낸 모든 물건이다. 박물관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시된 다양한 전시물에 대해 언급할 것이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박물관의 전시물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은 인류의 진화사를 포함한 천연의 만물뿐만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지혜를 통해 창작하고 만들어 낸 다양한 물건들이다.

스피노자는 「에티카」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인간 정신의 현실적 유를 구성하는 최초의 것은 단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개물의 관념일 뿐이다.³⁶⁾

34) 「大學章句」, 「經1章」, ※ 이 번역은 연구자의 번역이다.

35) 「朱子語類」, 「卷15」, ※ 이 번역은 연구자의 번역이다.

인간 정신을 구성하는 관념의 대상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인간 정신에 의하여 지각되지 않으면 안 된다. 또는 정신 안에는 이 사물의 관념이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즉 만일 인간 정신을 구성하는 관념의 대상이 신체라면, 신체 안에는 정신에 의하여 지각되지 않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³⁷⁾

인류가 자연의 만물을 활용하여 새로운 물건을 창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인류가 왜 박물관을 세우는지에 대한 답과 일맥상통한다. 인류는 인류 정신의 영원함을 위해, 감정의 의지를 담은 개체를 만들고자 하며, 인간의 본성에 따라 어떤 물건에 대한 개념을 형성한다. 그리고 이후에 인류는 가지고 있는 ‘신체’를 통해 이러한 개념을 실체화하여 물체를 형성한다. 이것이 인간이 만든 물건이다. 바로 스피노자가 말한 대로, 인류 정신적 개념을 형성하는 신체가 만들어내는 물체는 또한 인류 정신을 함축하고 있으며, 이러한 창조물들은 동시대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일조하거나, 후대 인류에게 가치를 전달한다. 어떻게 보든지, 박물관이라는 매체를 통해 각 물체가 함축하는 감정과 인류 정신이 현대 인류 앞에 명백하게 나타난다.

위에 내용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가. 성동권은 「대학의 감정과학」에서 이렇게 설명한다.

인간 정신을 구성하는 관념의 대상은 신체이거나, 또는 오직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연장의 양태일 뿐이다.³⁸⁾

스피노자에 의하면, ‘신체’와 ‘어떤 연장의 양태’만이 인간 정신을 구성하는 관념의 대상입니다. 즉, ‘몸’이라는 물(物)이 아니면 인간의 정신은 그 어떤 관념을 형성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관념을 형성할 수 없다는 말은 마음이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³⁹⁾

성동권이 설명한 대로, 만약 ‘몸’라는 매개체가 없다면 인간의 정신은 개념을 형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은 단순히 사고의 수준에 머무르게 되어 실제로 존재하는 사실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 감정과 정신을 표현하는 것조차 할 수 없다. 우리는 아래 그림을 그릴 수 있다.

몸-생김 → 몸 → 몸-놀이

36) 스피노자 저, 강영계 역, 『에티카』 (서광사, 2014), p. 94

37) 스피노자 저, 강영계 역, 『에티카』 (서광사, 2014), p. 95

38) 스피노자 저, 강영계 역, 『에티카』 (서광사, 2014), p. 96

39) 성동권, 『유교문화의 학문 대학의 감정과학』 (부크크, 2022), p. 270.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를 낳았고, 나는 내 몸을 가지게 되었다. 몸에 따라, 내 존재는 필연적이다. 우리의 몸에 내재된 본성은 천정을 따르는 것이며, 이것이 성(性)이다. 그리고 몸을 통해 감정을 느끼는 것은 유기체의 순간적인 변화이다. 이러한 신체적 감각은 다양한 감정 변화를 유발하며, 이것이 감정이다. 태어난 몸은 무한한 방식으로 무한한 변화를 겪는데, 이러한 변화가 바로 감정 과학에서의 ‘몸-놀이’의 정의이다. 이로 인해 박물관의 ‘물’은 존재를 통해 ‘몸-놀이’의 정의를 활용하여 인류 정신의 영원함을 전달한다.

3) 物自體의 본성

감정과학의 시각에서 이해할 때, 매우 중요한 것은 物은 物自體의 본성이다.

그렇다면 物自體의 본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주자는 『대학장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天下之物, 莫不有理.⁴⁰⁾

이 문장은 주자가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이 ‘리(理)’를 함축하고 있다고 여겼음을 보여준다. 주자의 관점에서 ‘리(理)’와 사물 자체의 본성 사이에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대학의 감정과학』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세상 모든 ‘감정’ (物)은 자기 존재에 관하여 ‘본성의 필연성’, 즉 ‘리’(理)를 가지고 있으며 오직 그것으로 존재한다고 합니다.⁴¹⁾

성동권은 ‘리(理)’를 ‘물’의 자체적인 존재의 필연성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이곳에서 ‘물’을 ‘감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물’은 세상의 만물을 가리킬 수 있으며, 또한 감정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리고 감정의 획득은 신체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우리 몸의 본성의 필연성은 영원하며, 세대를 거듭해 번식되는 인과 관계이며, 영원하고 무한한 생명과 사랑이다. 그러므로, ‘감정’(물)의 본성의 필연성 역시 영원하고 무한하며, 나 자신에 의해 감정에 대한 나의 이해를 형성

40) 『大學』, 『傳5』.

41) 성동권, 『유교문화의 학문 대학의 감정과학』 (부크크, 2022), p. 107.

한다.

위에서 설명한 대로, 박물관의 ‘물’이라는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한다. 이제 ‘격물’의 정의를 살펴해보도록 한다.

『대학의 감정과학』에서 ‘격물’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이처럼 우리의 일상을 두고 생각해 보면, ‘격물’(格物)의 ‘물’(物)은 신체의 변용으로서 감정이며, ‘격’(格)은 마음이 그 감정에 나아가(이르러[至]) 그에 대한 관념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자기 몸이 느끼는 감정에 대한 관념을 형성하면, 그 즉시 감정 안에서 몸과 마음은 본래 하나입니다. 이 ‘하나’의 진리가 격물(格物)입니다.⁴²⁾

성동권은 ‘물’이 몸의 변화이자 감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격’은 행동의 움직임으로, 마음이 감정을 향해 이루어지는 개념화의 행위이다. 동시에 그는 마음이 몸의 변화를 통해 감정 개념을 형성한다고 본다. 이러한 면에서 몸과 마음은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박물관에서 전시물을 관찰하고 환경을 느끼며, 몸의 변화를 통해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다른 생각과 개념을 형성할 수 있다.

『대학의 감정과학』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한다.

‘격물’은 생각하는 마음이 자기 안에서 자기 사유의 능동성에 근거하여 자기 몸의 변용인 감정에 대한 관념을 형성하는 것입니다.⁴³⁾

『대학의 감정과학』에서 주자의 견해를 분석하여 위에서 말한 주장을 입증한다.

蓋人心之靈，莫不有知。⁴⁴⁾

사람의 마음은 자기 안에서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가운데 자기이해 안에서 최고의 완전성으로 명석판명의 인식을 형성한다.⁴⁵⁾

이 문장은 인간의 마음이 자기인식 능력을 가진다는 것을 말한다. 우리의 마음은 자기 스스로 생각과 자기 스스로 이해를 통해 감정에 대한 인식 개념을 형성한다. 박물관에 있을 때, 존재하는 신체를 통해 ‘격물’의 행동을 함으로써, 사실은 마음이 다른 인식에 대해 자기 스스로 생각과 자기 스스로 이해를 통해 박물관의 전체 또

42) 성동권, 『유교문화의 학문 대학의 감정과학』 (부크크, 2022), p. 269.

43) 성동권, 『유교문화의 학문 대학의 감정과학』 (부크크, 2022), p. 270.

44) 『大學』, 『傳5』.

45) 성동권, 『유교문화의 학문 대학의 감정과학』 (부크크, 2022), p. 102.

는 일부에 대한 자신만의 생각과 감정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대학』에서 말하는 ‘자명(自明)’이다.

동일하게, 퇴계(退溪)의 견해 해석 또한 위에서 언급한 견해를 확인한다.

(退溪曰:)

:夫心, 具於方寸而, 至虛至靈.⁴⁶⁾

[번역]

무릇 마음은 자기 가슴 속에 있지만, 그것은 ‘자기 안에서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능동적인 것(虛)이며, 그 생각이 자기 안에서 자명한 ‘자기이해’(靈)를 형성합니다.⁴⁷⁾

마음은 외부 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 내부에서의 자기 스스로 생각과 자기 스스로 이해를 하는 것을 ‘지허지령(至虛至靈)’이라고 한다. ‘지허(至虛)’는 마음이 자기 내부에서의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것을 가리키며, 능동적이다. 그리고 ‘지령(至靈)’은 마음이 자기 내부에서의 자기 스스로 이해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 당연한 것이다. 이것들은 인간의 본성으로, 이해하고 배워야 할 사물에 대한 내부적인 생각을 수행하고, 결국에는 다양한 감정에 대한 개념을 형성한다.

以至虛至靈之心, 求至顯至實之理, 宜無有不得者.⁴⁸⁾

마음은 자기 존재에 관하여 자기 안에서 자기 스스로 영원의 필연성으로 자명하게 이해하기 때문에 이 마음은 감정을 명명백백하게 실재하는 본성의 필연성(性理)으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사람의 마음이 감정에 대한 이해를 본성(性)의 필연성(理)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있을 수 없습니다.⁴⁹⁾

이 문장은 ‘지허지령(至虛至靈)’의 마음으로 감정의 본성을 탐구하는 필연성, 즉 ‘리(理)’를 이해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경지가 없다고 설명할 수 있다. 마음은 내부에서 스스로를 생각하고 이해함으로써 감정의 본성의 필연성을 명확히하고, 이는 하늘과 함께 존재하는 것이며 영원히 끝없는 전승이다. 마침내 ‘치지(致知)’의 경지에 이를 것이다.

3. 『대학의 감정과학』으로 이해하는 치지(致知)

46) 『성학십도(聖學十圖)』, 『차(筵)』.

47) 성동권, 『유교문화의 학문 대학의 감정과학』 (부크크, 2022), p. 101.

48) 『성학십도(聖學十圖)』, 『차(筵)』.

49) 성동권, 『유교문화의 학문 대학의 감정과학』 (부크크, 2022), p. 117.

‘격물(格物)’은 마음이 감정으로 향하는 과정이자 물 자체의 본성을 탐구하는 행위로 요약될 수 있다면, ‘치지(致知)’는 物自體의 본성을 명백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격물’에서 ‘치지’로 나아가는 것은 진행적인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치지’는 ‘격물’의 최종적인 표현이다.

『대학의 감정과학』에서 주자의 ‘격물치지’ 관점을 감정 과학적인 시각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해석한다.

間嘗竊取程子之意以補之曰：所謂致知在格物者，言欲致吾之知，在卽物而窮其理也。⁵⁰⁾

일찍이 정이(程頤, 1033~1107)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말하자면, 이른바 ‘(몸에 대한) 마음의 타당한 인식은 감정에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은 (몸에 대한) 내 마음의 인식을 타당하게 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감정에 나아가 그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을 이해하는 데에 있다는 뜻이다.⁵¹⁾

지(知)는 사물의 본성에 대한 필연성의 인식을 말하고, 이(理)는 본성의 필연성이다. 이 문장은, 마음은 몸으로 느끼는 감정을 통해 감정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형성하며, 사물의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이곳에서 한 편으로는 物自體의 본성의 필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치지’의 ‘지’가 달성하는 경지는 物自體의 본성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惟於理有未窮，故其知有不盡也。⁵²⁾

그러나 마음이 ‘뜻밖에’ 자기 본성을 어김으로써 자기이해의 자명함을 놓아버리면, 그 즉시 마음은 감정에 대한 이해를 감각적 현상에 의존함으로써 잘못 생각하고 잘못 배우게 된다. 그 결과 마음은 감정을 우연적인 것으로 잘못 이해하게 되며, 급기야 감정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에 대해서 배우지 않게 된다[惟於理未窮]. 그 결과 마음은 감정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빠져서 감정을 좋은 감정과 좋지 않은 감정으로 가르기 시작하며 급기야 악한 감정도 있다는 그릇된 주장을 거리낌 없이 하게 된다[故其知有不盡也].⁵³⁾

마음은 ‘격물’을 통해, 즉 마음이 자신의 본성에 따라 자신을 생각하고 이해함으로

50) 『大學章句』, 『傳5』.

51) 성동권, 『유교문화의 학문 대학의 감정과학』 (부크크, 2022), p. 129.

52) 『大學』, 『傳5』.

53) 성동권, 『유교문화의 학문 대학의 감정과학』 (부크크, 2022), p. 129.

써, 감정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형성하여 ‘치지’라고 한다. 만약 ‘자명’의 본성을 포기한다면, 감정 이해는 편견을 갖게 되어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이다. ‘물’의 존재, 즉 감정의 존재는 우박한 것이 아니라 필연성이다. 감정에 대한 적절한 이해가 있는지, 物自體의 본성을 이해했는지 여부가 ‘치지’의 경지에 도달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예를 들어, 박물관에서 어떤 것에 대한 이해와 생각은 다른 사람이 전달하는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직접 체험하고 접촉해야만 자신의 가장 정확한 감정과 인식을 얻을 수 있다.

此謂物格, 此謂知之至也.⁵⁴⁾

이 행복은 ‘마음이 감정 그 자체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에 이르는 것[物格]’이며, 이 것[物格]은 실질적으로 ‘마음이 감정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으로부터 감정의 순수지선(純粹至善)을 이해하는 것[知之至]’이다.⁵⁵⁾

만약 ‘격물’과 ‘치지’가 모두 동적이라면, ‘물격’과 ‘지지지(知之至)’는 이 동작을 완성하는 명사이다. ‘물격’은 마음이 감정의 본질적인 필연성을 이해하는 것을 완료하며, ‘지지지’는 마음이 감정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인정함으로써 감정의 순수지선(純粹至善)을 달성한다. ‘격물치지’를 통해 사물의 순수지선이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목표이자 인류 정신의 최고 경지이다.

『대학의 감정과학』에서도 ‘치지’의 정의를 명확하게 밝힌다.

치지(致知)는 심오하거나 어려운 것이 절대 아닙니다. 감정에 대한 타당한 관념을 형성하는 것일 뿐입니다.⁵⁶⁾

치지(致知)는 감정의 마음이 자기 안에서 자기 스스로 감정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을 이해하는 감정의 ‘자기이해’입니다.⁵⁷⁾

요약하면, ‘치지’는 마음이 감정에 대한 자기 스스로 이해를 실현하고, 감정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형성하는 것이다. ‘치지’에 도달한 감정은 명확하고 정확한 것으로 말할 수 있다. 인류는 감정에 대한 자기 이해를 통해 독특하고 지혜로운 우수한 문화 예술의 결정을 창조한다. 이러한 마음의 감정에 대한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은 필연적으로 계속된다. 현대 인류는 이러한 문화 예술의 결정을 직면할 때, 그리고 박물관이라는 전체 공간과 마주할 때, 마음도 자신의 본성에 따라 감정에 대한 자

54) 『大學』, 『傳5』.

55) 성동권, 『유교문화의 학문 대학의 감정과학』 (부크크, 2022), p. 130.

56) 성동권, 『유교문화의 학문 대학의 감정과학』 (부크크, 2022), p. 271.

57) 성동권, 『유교문화의 학문 대학의 감정과학』 (부크크, 2022), p. 271.

기 생각과 이해를 통해 새로운 의미에서의 생각과 이해를 얻는다.

마지막으로, 성동권은 '대학의 감정과학'에서 주자의 '격물치지' 관점을 인정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쓴다.

감정이 자기 안에 품고 있는 자기 본성의 필연성을 감정 스스로 자명하게 이해하는 것이 '격물치지'.⁵⁸⁾

오직 주자의 '대학'만이 유일한 대안이자 정답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주자의 '대학'은 진리 앞에 겸손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학문인 것입니다. 주자의 격물치지(格物致知)에 의하면, 사물(事物, 사실상 '감정')은 본래부터 자기 존재에 관한 한 자기 본성의 필연성을 영원무한 그 자체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명백한 까닭은 사물(事物)은 엄밀히 말해서 우리 자신의 몸이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몸이 느끼는 감정이 없으면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감정의 진실이 '물'(物)이며, 이 진실로 살아가는 것이 '사'(事)입니다. 사물(事物)을 몸이 느끼는 감정으로 이해하면, 몸-생김 그 자체의 본성으로부터 몸-놀이 그 자체의 본성은 필연적입니다.⁵⁹⁾

그러므로 주자의 '격물치지'는 감정인 '물'의 자체 본성의 필연성이 영원히 무한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확히하는 것이다. 인류의 마음은 자신의 본성에 따라 감정을 적절하게 배우하고 이해하는 것이 '격물치지'라고 불리며, 이것이 바로 '박물관'이다. 동시에 성동권은 감정과학에서 강조했듯이, 인간의 마음은 '격물치지'의 주체로서 감정의 이해에는 몸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그래서 감정은 감정과학의 정의에서 몸의 변화이다. 두 가지는 분리될 수 없다. 주자의 '격물치지'는 실제로 '물'의 본성의 필연성, 즉 '리'를 탐구하여 결국 '사물의 순수지선'에 대한 이해에 이르는 것이다.

58) 성동권, '유교문화의 학문 대학의 감정과학' (부크크, 2022), p. 271.

59) 성동권, '유교문화의 학문 대학의 감정과학' (부크크, 2022), p. 277.

제3장 『중용』의 감정과학에 근거한 박물의 박(博) 이해

박물관의 ‘박(博)’과 ‘물(物)’ 두 글자는 한 글자도 떨어져서는 안 된다. 주자의 ‘격물치지(格物致知)’ 관점을 감정과학적인 시각으로 분석한 후, 중국 유학사상의 서적 중 하나인 『중용』에 제시된 ‘박학(博學)’의 관점을 통해 박물관의 ‘박(博)’자를 심층적으로 연구할 것이다. 이 절에서는 중국의 학자들이 제시한 ‘박학(博學)’의 일반적인 이해와 『중용의 감정과학』에서 이해하는 ‘박(博)’과 ‘학(學)’을 분석하여 감정과학적 기반에서 ‘박학(博學)’의 의미를 이해하고 다 좋은 세상의 개념을 명확하게 할 것이다.

제1절 박학(博學)에 대한 일반 이해

‘박학’이라는 용어는 중국 고대에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명사로서, 폭넓은 학식을 가리킨다. 다른 하나는 동사로서, 광범위하게 배우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 유학사상의 서적 중 하나인 『중용』에서 ‘박학’ 관점이 이렇게 제시된다.

博學之, 審問之, 慎思之, 明辨之, 篤行之.⁶⁰⁾

주자는 『백록동서원학규(白鹿洞書院學規)』에서 이 문장에 대한 이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學者學此而已, 而其所以學之之序, 亦有五焉, 其別如左: 博學之, 審問之, 慎思之, 明辨之, 篤行之.⁶¹⁾

‘박학’은 광범하게 배우고 지식을 축적하는 것을 나타내며, ‘심문’은 지식을 심층적으로 탐구하고 의심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사’는 심사숙고하여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나타내며, ‘명변’은 다양한 견해와 정보를 구분하고 분류하는 것을 의미한다. ‘독행’은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지키고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60) 『中庸』, 「20章」.

61) 『白鹿洞書院學規』.

주자는 이것들이 학자가 배워야 할 다섯 가지 순서라고 생각한다. 그 중에서도 ‘박학’이 가장 중요하며, 기초이자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박학’의 관점이 존재하는 중요성이 드러난다.

다음은 ‘박학’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일반적인 이해이다.

1. 장학성(章學誠)의 ‘박학우문, 요지이예례(博學於文, 約之以禮)’

만용(萬蓉)은 「‘박학우문, 요지이예례’—장학성(章學誠)의『문사통의』를 분석」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박학’의 중편에서, 장학성은 말했다: “博學強識, 儒之所有事也; 以謂自立之基, 不在是矣。學貴博而能約, 未有不博而能約者也; 以言陋儒荒俚, 學一先生之言以自封域, 不得謂專家也。然亦未有不約而能博者也; 以言俗儒記誦漫漶, 至於無極, 妄求遍物, 而不知堯、舜之知所不能也……名有由立, 非專門成學不可也, 故未有不專而成學者也”。

이 문장은 박학과 전문의 관계를 간결하게 개요했으며, 일반 지식과 전문 연구를 중시하는 학문적 사고를 제시한다. 여기서의 ‘박’은 광범하게 배우는 것을 의미하며, ‘약(約)’은 전문적으로 전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광범한 지식이 필요하며, 이는 ‘박’과 ‘약’의 통합적인 관계를 보여준다.⁶²⁾

여기에서 명확한 것은 장학성이 박학에 대한 견해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며, ‘박’과 ‘약(約)’을 대립되지 않고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여겼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점이 발견된다. 첫째, ‘박학강식, 유지소유사야; 이위자립지기, 불재시이야(博學強識, 儒之所有事也; 以謂自立之基, 不在是矣).’에서 알 수 있듯이, 장학성은 광범하게 배우고, 이를 통해 유학적인 모든 것을 이해한다고 본다. 그러나 그는 이것이 자립의 근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약’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여 특정 분야에 대한 깊은 연구를 강조한다. 둘째, ‘학귀박이능약, 미유불박이능약자야(學貴

62) 만용(萬蓉), “‘博學於文, 約之以禮’—試析章學誠『文史通義』反映的治學思想(‘박학우문, 요지이예례’—장학성의『문사통의』를 분석),”『長沙大學學報(창사대학학보)』(창사대학교, 2014), p. 69.

※ 인용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在《博約》的中篇中, 章學誠說: “博學強識, 儒之所有事也; 以謂自立之基, 不在是矣。學貴博而能約, 未有不博而能約者也; 以言陋儒荒俚, 學一先生之言以自封域, 不得謂專家也。然亦未有不約而能博者也; 以言俗儒記誦漫漶, 至於無極, 妄求遍物, 而不知堯、舜之知所不能也……名有由立, 非專門成學不可也, 故未有不專而成學者也”。這一段話精辟地概括了博學和專精的關係, 提出了一般知識與專門研究並重的治學思想, 此處的“博”, 意為淵博, 即廣泛的遊覽、系統的涉獵; “約”意為專精, 即在廣泛遊覽的基礎上, 選擇一個領域作深入的研究。要做到“約”, 首先要有淵博的知識作為基礎, 這裏體現了“博”和“約”的辯證統一關係。

博而能約，未有不博而能約者也).’에서 보듯이, 장학성은 ‘박’을 ‘약’의 기초로 보고, 박학적 지식이 있어야만 특정 분야에서 ‘전가(專家)’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여긴다. 이에 대응하여 단순히 광범하게 학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특정 분야에 대한 깊은 연구가 없으면 ‘학자(學者)’로서 인정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박’과 ‘약’은 한쪽이 없으면 안 되며, 서로 의존적인 관계에 있다.

만용(萬蓉)은 「‘박학우문, 요지이에례’—장학성(章學誠)의 「문사통의」를 분석」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박’의 목적은 ‘약’에 있어야 한다. 즉, 약을 위한 박을 추구함으로써 명확한 목적성을 나타낸다. 그 반대로, 약은 또한 박의 기반이 있어야만 실현될 수 있다. 전가가 되려면 광범한 지식이 필요한 것이고, 풍부한 학문적 지식을 갖추어야 특정 분야에 전문가가 될 수 있다.⁶³⁾

만용은 장학성의 ‘박’ 관점이 ‘약’에 목적이 있다고 주장한다. 간단히 말해 광범하게 배우는 것의 최종 목적은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습득하는 것입이다. 마찬가지로, 전가가 되기 위해서는 광범한 지식이 필요하며, 특정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를 위해 박학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이곳에서의 ‘박학’은 모든 지식을 광범하게 습득하여 특정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를 위해 준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요약하면, 장학성의 ‘박학우문, 요지이에례’는 ‘박’을 전제 조건으로 하여 ‘약’으로 나아가는 것을 강조하며, 이 둘을 중시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전문성학(專門成學)’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가 제시한 ‘박학’ 관점은 세 가지를 강조한다. 첫째, 광범하게 유학 사상 지식을 습득하고 깊은 통찰력을 갖는 것이 학자의 기초라고 생각한다. 둘째, 특정 분야에서 진정한 성취를 원한다면 해당 분야를 깊이 연구해야 한다. 셋째,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만이 해당 분야에서 성과와 명성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 장학성은 「논어」의 ‘박학우문, 요지이에례’의 사상을 자신의 이해에 부여함으로써, 지식의 축적과 전문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2. 고염무(顧炎武)의 ‘박학우문, 행기유치(博學於文，行己有恥)’

원열정(原悅婷)은 「고염무(顧炎武)의 ‘박학우문, 행기유치’학술도덕 사상」에서 다음

63) 만용(萬蓉), “‘博學於文，約之以禮’—試析章學誠「文史通義」反映的治學思想(‘박학우문, 요지이에례’—장학성의 『문사통의』를 분석),” 『長沙大學學報(창사대학학보)』 (창사대학교, 2014), p. 69.

※ 인용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博”的目的應該在“約”，爲約求博，體現了明確的目的性；反之，約也只有博的基礎上才能實現，要成專家之學，必然要有淵博的知識爲基礎，有了豐富的學問，才能擇一而專。

과 같이 말한다.

‘박학우문’의 내포는 주로 광범하게 문화 지식을 배우는 것을 가리킨다. ‘행기유치’는 귀인이 일을 할 때 수치심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고염무는 처음에 이 개념을 확대하여 ‘박학우문’의 외연을 넓힌다. 여기서의 ‘문’은 단순히 글이 아니라 인간관계, 사회교류, 그리고 천하사물을 다루는 총칭이다. 이것이 학습의 내용이며, 학습의 목적은 세계를 이롭게 하는 데 있다. 고염무는 ‘행기유치’를 국가와 관련시켰으며, 즉 ‘선비들의 부끄러움은 국가의 부끄러움이다’라고 한다. 이러한 사상은 당시 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오늘날에도 깊은 가치와 의미가 있다.⁶⁴⁾

여기에서 먼저 ‘박학우문, 행기유치’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으며, 고염무가 ‘논어·염원’과 ‘논어·자로’의 두 가지 사상을 결합시킨다. 고염무가 이러한 사상을 제시함으로써 원래의 의미인 ‘박학우문’의 ‘문’의 정의를 확대했으며, 이제 ‘문’은 글에만 국한되지 않고 인간관계, 사회교류 및 천하사물을 포함하고 있다. 다시 말해, 그는 문을 문서적인 지식으로만 이해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가리키도록 한다. 이는 사실상 그가 학습 내용이 필요한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고염무의 이 사상의 주요 관점은 주로 학습의 목적, 즉 세계를 이롭게 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그는 ‘행기유치’ 주장을 국가 운명과 관련시켜 개인의 인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귀청상(郭清香)은 ‘박학유치, 구실창신(博學有恥, 求實創新) — 고염무의 학술도덕 사상’에서 고염무의 사상을 이렇게 이해한다.

고염무는 ‘박학유문’을 학자의 도덕의 핵심으로 여기며, 오늘날에도 큰 영감을 준다. 한편으로는 광범하고 폭넓은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학자가 학자로서의 전제조건이며, 이것이 없으면 본격적인 ‘학자’로서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이미 ‘학자’가 된 사람이 자신의 지식을 더 이상 늘리지 않고 기존의 견해에 안주한다면, 진정한 박학의, 합격한 학자가 될 수 없다. 학자의 박학은 절대로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 계속 확장되는 과정이다. 따라서 발전에 무관심하고 중태에 안주하는 학자는 도덕적으로 틀린다. 저수준의 반복에만 만족하고 학문적 거품을 일으키는 학자는 진정한 학자가 아니다. 또한, 학자는 재능이 있으면 더욱더 도덕이 있어야 한다. 재능은 있지만 도덕이 없는 학자는 사회에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다. 고염무는 ‘치’라는 반대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여 학자가 자신의 도덕적 성장에 주의를 기울이고 자기를 규제하도록 강조한다. 명예와 이익을 위해 도덕을 잃어버리지 말고, 학문적 환경을 정

64) 원열정(原悅婷), ‘論顧炎武“博學於文, 行己有恥”學術道德思想 (고염무의 ‘박학우문, 행기유치’학술도덕 사상)’ (學理論(학이론), 2020), p. 84.

※ 인용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博學於文”內涵主要指廣泛地學習文化知識, “行己有恥”是指君子做事有羞恥之心。顧炎武在其最初意義上進行闡發, 他將“博學於文”的外延擴大, 這裏的“文”不僅僅指文章, 更是爲人處世、人際交往以及處理天下事物的總稱。這是學習的內容, 而學習的目的是經世致用。顧炎武將“行己有恥”與國家相聯系, 即“士大夫之無恥, 是爲國恥”。這一思想對當時學術界產生極大的沖擊, 時至今日仍有著深刻的價值意義。

화하고 학술적 도덕을 촉진하는 것은 학자의 자율성에 달려 있으며, 학자 개인의 도덕적 품성 교육에 어필해야 한다. 이는 학자가 실제 연구를 열심히 하고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진지하게 하고 자신의 견해를 주장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속이고 허위를 만들거나 남의 결과를 도용하거나 저수준의 반복을 반대한다.⁶⁵⁾

고염무의 사상에 대해 현대 학자들 대부분은 그것이 후세에 큰 영향과 계시를 줬다고 생각한다. 김청향은 고염무가 ‘학자’로서의 정의를 두 가지 측면으로 요약한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학자’가 넓은 범위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지식을 계속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측면은 ‘학자’로서는 ‘덕(德)’이 필요하며, 자기의 도덕적 육성을 강조하고, 명예와 이익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염무는 부정적인 단어 ‘치’를 사용하여 학자의 자기 규제가 학술 환경을 정화하고 학술 도덕을 촉진하는 기초임을 강조한다. 학자는 열심히 연구하고 지속적으로 학습하며 자신의 사고를 진지하게 하고 자신의 견해를 주장해야 한다. 허위를 만들거나 남의 성과를 침해하거나 저수준의 반복을 반대한다.

고염무의 ‘박학유문, 행기유치’는 장학성의 ‘박학유문, 약지이레’와 비교하여 세 가지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 첫째, 고염무는 ‘문’의 정의를 확장시켰으며, 이제 그것을 전통적인 이해와 달리 지식만을 일반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학습 내용의 변화이기도 한다. 둘째, 고염무와 장학성 모두 진정한 ‘학자’가 되기 위해 ‘박학’을 필수적인 기반으로 간주하지만, 두 사람 모두 ‘박학’의 목적에 대해 다르게 생각한다. 장학성은 특정 분야에 대해 심층적으로 연구하여 ‘전가’가 되는 것을 선호하는 반면, 고염무는 ‘치(恥)’를 자신의 사상의 핵심으로 삼아 학자는 자기를 규제하여 국가에 의미 있는 공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셋째, 장학성은 ‘박’과 ‘약’의 방법을 통해 명성과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만, 고염무는 명예와 이익에 의해 부담받지 않아야 하며, 그는 세계를 위한 이상을 가지고 있으며, 학자는 국가, 사회, 백성에게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믿는다.

65) 귀청상(郭清香), 「博學有恥, 求實創新——論顧炎武的學術道德思想 (박학유치, 구실창신——고염무의 학술도덕 사상)」, 《求是學刊(구시학간)》, 2003), p. 114.

※ 인용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顧炎武把博學有恥作爲學者道德的核心, 對今天的啓示也很大。一方面具有廣博的知識, 這是學者之爲學者的前提條件, 缺少這一點, 根本就算不上是“學者”; 而如果一個已經成爲“學者”的人, 不繼續增進自己的知識, 自得於已有的一孔之見, 就算不得一個真正博學的、合格的學者。學者的博學絕對不是一個靜止的狀態, 而是一個不斷擴展的過程。因此, 不思進取、得過且過的學者是不道德的。只滿足於低水平重複、擅長制造學術泡沫的學者, 不是真正的學者。另一方面, 學者有才更需有德。有才而無德的學者, 對於社會所造成的危害往往是難以估量的。顧炎武用了一個反面否定的詞“恥”, 來強調學者應注重自身的道德修養, 注重自律, 警醒天下學者之士不要爲名利而喪失道德。淨化學術環境, 提倡學術道德, 其根本在於學者的自律, 需要訴諸學者個人的道德品質修養。這就要求學者踏實做研究, 不斷學習提高, 認真做自己的思考, 講自己的觀點。反對弄虛作假、反對侵佔他人成果、反對低水平重複。

3. 조형(焦竑)의 ‘박학계오(博學啓悟)’론

한매화(韓梅花)와 나오준(羅軍)은 「조형(焦竑)의 ‘박학계오’론 지도하의 장서 사상」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조형은 학습 목적에 대해 매우 명확한 인식을 갖고 있으며, 그는 ‘학위지성(學爲知性)’이라고 생각한다. ‘학문은 단지 지성을 위한 것이다. 지성을 알지 못하면 넓은 지식과 강력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인상을 주고 존경받으며, 천년의 영광을 빛내도 마땅치 않은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준의 ‘지성’은 조형이 실제로 추구하는 진정한 의미의 ‘지성’이 아니다. 따라서 그는 더 나아가서 말 ‘학문이 지성을 알지 못한다면, 고전을 평론하고 책을 분류하는 것은 학문이 아니다. 지성을 알지 못한다면, 생사와 영화를 이해할 수 없고, 외적인 화복과 불행을 알지 못하고, 천하의 일을 이루기 위한 일을 할 수 없다. 이것이 지성이 아니다.’ ‘지성’에 도달하는 방법에 대해 조형은 ‘오(悟)’이라는 방식을 주장한다. 즉, 마음의 본성을 깨달음으로써 지성을 깨달는다.⁶⁶⁾

조형은 학습의 목적을 매우 명확하게 표현한다. 즉, ‘지성(知性)’이다. 그는 ‘지성’을 달성하지 못하면, 넓고 폭넓은 지식과 강력한 시각을 가지고 있어도, 자신의 위업에 어울리는 행동을 취하고, 심지어 역사의 길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더라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는 학습을 단순히 고전을 찾아보고 자료를 정리하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았다. 그는 ‘지성’이 생사, 행복과 고통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고, 천하의 일을 달성하기 위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믿는다. 동시에 ‘지성’을 달성하기 위해 조형은 ‘오(悟)’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즉, 마음의 본성을 깨닫고, 인간의 내재적 본성을 탐구한다.

한매화(韓梅花)와 나오준(羅軍)은 「조형(焦竑)의 ‘박학계오’론 지도하의 장서 사상」에서 조형의 ‘오(悟)’개념을 설명한다.

조형은 ‘오(悟)’이 점진적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믿는다. 즉, 수행자는 지식을 계속 축적함으로써 먼저 ‘해오(解悟)’ 단계로 진입하고, 그런 다음 실천 활동에서 도덕적 경지를 깨닫게 되어 ‘해오에서 철오(徹悟)’로 이어지며, 마지막으로 ‘실유제기(實

66) 한매화(韓梅花), 나오준(羅軍), 「焦竑‘博學啓悟’論指導下的藏書思想(조형의 ‘박학계오’론 지도하의 장서 사상)」, 《古籍保護研究(고서보호연구)》, 2015), pp. 151-152.

※ 인용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焦竑對於爲學目的有著十分明確的認識, 他認爲“學爲知性”: “夫學, 知性而已。性之弗知, 卽博聞強識, 瑰行尊伐, 炫耀千古, 而不能當達者之一盼。”但是, 這一層面上的“知性”並不是焦竑所追求的真正意義上的“知性”。因此, 他進一步闡述道: “夫學不能知性, 古籍普查與編目非學也; 知性矣, 而不能通生死、外禍福, 以成天下之務, 非知性也。”對於如何達到“知性”, 焦竑提倡以“悟”的方式, 卽體悟心的本體。

有諸己)’의 최고 경지에 이르게 된다. 철오를 얻는 방법에 대해, 조경은 자신의 특징을 결합하여 ‘박학계오’의 왕학 이론을 설계한다. ‘박학’은 도덕적 성장의 수단으로 조경에게 두 가지 의미를 부여한다. 하나는 ‘전집을 연구하여 맛본다’라는 의미로서 박학의 이치를 이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실천 활동에서 도덕적 경지를 체험하는 것이다. 학자, 사상가, 서적학자로서, 조경의 ‘실천 활동’과 ‘전집을 연구하여 맛본다’는 마찬가지로 학술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며, 이를 수단으로 삼아 최종적으로 진정한 의미의 ‘지성(知性)’에 도달할 수 있다.⁶⁷⁾

조경은 ‘오(悟)’이 점진적인 과정으로 나뉘어진다고 믿는다. 먼저 ‘해오(解悟)’ 단계로 진입하기 위해 지식을 축적하고 이해하는 것을 통해 ‘해오’ 단계로 진입한다. 그런 다음 실천 활동을 통해 도덕적 경지를 깨닫고 ‘해오에서 철오(徹悟)’로 나아가게 된다. 마지막으로 ‘실유제기(實有諸己)’의 최고 경지에 이르게 되어 자신의 내면 본질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된다. 조경은 ‘오(悟)’의 이해, 즉 ‘박학’의 최종 목적에 도달하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구연모와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두 사람은 모두 학자가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지식을 계속해서 축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경의 독특한 사고방식은 실천 활동이 ‘지성’ 경지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단계라고 본다. 조경의 ‘박학계오’이론은 ‘전집을 연구하여 맛본다’와 ‘실천 활동’을 결합하여 이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학자가 학술 연구를 수행하는 동시에 실천 활동에 참여하여 자신의 도덕적 경지를 향상시키고, 최종적으로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한매화(韓梅花)와 나오준(羅軍)은 ‘조형(焦竑)의 ‘박학계오’론 지도하의 장서 사상’에서 조경의 사상을 요약한다.

조경이 추구하는 인생 목표는 ‘천하사물을 이루는(成天下之務)’의 ‘지성(知性)’이다. 자신의 인생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조경은 자신의 특성을 고려하여 ‘박학계오(博學啓悟)’를 구축한다. 여기에서의 ‘오(悟)’은 ‘지성’이며, ‘성인 신분의 소망(通達聖賢之志)’을 이루기 위해 획득한 ‘진심(眞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려면 ‘박학’이라는 문턱을 통과해야 하며, ‘박학’은 ‘전집을 연구하여 맛본다’와 ‘실천’을 통해 얻어져야 한다.⁶⁸⁾

67) 한매화(韓梅花), 나오준(羅軍), ‘焦竑‘博學啓悟’論指導下的藏書思想(조형의 ‘박학계오’론 지도하의 장서 사상) (古籍保護研究(고서보호연구), 2015), p. 152.

※ 인용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焦竑認為“悟”需要經歷一個漸進的過程，即修行者通過不斷地進行知識的積累，首先進入“解悟”階段，然後在實踐活動中體悟道德境界由“解悟而徹悟”，最後達到“實有諸己”的最高境界。至於獲得解悟的方法，焦竑結合自身特點設計了“博學啓悟”的王學理論。“博學”作為道德修養的途徑，被焦竑賦予了兩個含義：一個含義是“研味於典籍”，博學義理，另一個含義是在實踐活動中體會道德境界。作為學者、思想家、文獻學家，焦竑的“實踐活動”和“研味於典籍”一樣都是進行學術研究，並以此為手段，最終達到真正意義上的“知性”。

68) 한매화(韓梅花), 나오준(羅軍), ‘焦竑‘博學啓悟’論指導下的藏書思想(조형의 ‘박학계오’론 지도하의 장서 사상) (古籍保護研究(고서보호연구), 2015), p. 156.

※ 인용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焦竑所追求的人生目標是能“成天下之務”的“知性”。為了實現自己的

요약하면, 조경은 ‘박학’이 달성하는 최종 경지가 ‘천하사물을 이루는(成天下之務)’의 ‘지성(知性)’임을 믿는다. 이러한 ‘지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폭넓은 지식을 축적하고, 그런 다음에는 마음의 본성을 탐구하여 생사와 행복, 고통 사이의 연결을 이해하고, 마지막으로 천하의 일을 자신의 책임으로 삼아야 한다. 조경의 ‘박학계오(博學啓悟)’ 사상은 감정과학의 ‘박학’에 대한 이해와 유사한 면이 있다. 둘 다 마음을 통해 본성을 탐구하고, 마지막으로 최고의 경지에 도달한다.

제2절 감정과학의 박학(博學)

1. 선행 연구 비판 및 문제제기

위에서 언급한 현대 학자들의 ‘박학(博學)’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 ① ‘박학(博學)’의 ‘박(博)’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 ② ‘박학(博學)’의 ‘학(學)’은 무엇을 배우는 것인가?
- ③ ‘박학(博學)’의 목적이나 최종 결과는 무엇인가?

위의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정과학을 활용하여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1) ‘박학(博學)’의 ‘박(博)’

위에서 언급한 몇몇 학자들의 ‘박학’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통해, 그들은 ‘박’을 넓게(‘배우는’) 정의하고, ‘박’을 ‘학’을 수식하는 형용사로 간주한다. 그러나 중용의 감정과학에 의하면 박학의 ‘박’은 모든 사물이다. 감정과학의 관점에서, ‘박’은 ‘학’이 배워야 하는 대상이며, 즉 학습의 범위를 나타낸다. 장학성은 학습 대상을 유학사상

人生目標，焦竑結合自身特點構建了“博學啓悟”的王學理論，其中的“悟”就是“知性”，就是“通達聖賢之志”以獲取的“眞心”，是目的。要想達到這個目的則須通過“博學”這個門徑，而“博學”則需要通過“研味於典籍”和“實踐”獲得。

의 모든 것으로 이해하지만, 그것은 단지 서적에 국한된다. 고염무는 더 많이 확장하여 인간관계, 사회적 상호 작용 및 천하 사물을 모두 포함하지만, 그것은 단지 천하 사물을 완수하기 위한 준비일 뿐이다. 이 모든 것은 ‘박’의 진정한 의미를 포착하지 못한다. 제2장에 따르면, ‘물’은 감정, 몸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모든 사물은 모든 감정, 모든 신체를 의미한다.

2) ‘박학(博學)’ 배우는 것

위에서 언급한 대로, 장학성은 ‘학’이 서적 지식을 배우는 것이며, 넓은 학습과 전문 연구의 관계를 강조한다고 여긴다. 고염무는 ‘학’이 경제의 일을 배우는 것이며, 학자의 도덕적인 면에서의 자율성에 더 주안점을 둔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조경의 견해는 ‘서적의 맛을 읽다’라고 할지라도, 그가 주목하는 것은 마음의 본성을 탐구하는 것이며, 이는 감정 과학의 정의에 가깝다. 중용의 감정과학에 의하면 ‘학’은 모든 사물의 본성을 이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박학’의 ‘학’은 사물의 본질을 배우는 것이며, 즉 몸의 본성, 감정의 본성을 의미한다. 사물(몸)의 본성을 어떻게 배우고 이해하는지는 이어지는 내용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3) ‘박학(博學)’의 목적이나 최종 결과

장학성은 ‘박학’의 목적을 ‘약(約)’으로 정의하고, 특정 분야를 심층적으로 연구하여 ‘전가(專家)’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고염무는 ‘박학’의 목적을 경제에 이바지하고 유용하게 쓰이는 것으로 보며, ‘박학’의 수단을 통해 ‘학자(學者)’의 자기 규율을 엄격히 지키고 나라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조경은 ‘박학’의 목적을 ‘지성(知性)’으로 정의하며, 즉 마음의 본성을 탐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동시에 실천 활동을 통해 체감하는 방식으로 이 목표를 달성하려고 한다. 조경의 사상은 ‘박학’ 개념의 진정한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감정과학적 이해에서 ‘박학’의 목적은 사물의 본성을 이해하는 것으로, 즉 몸의 본성의 필연성을 의미한다. 몸의 본성의 필연성을 이해하는 것은 무한한 생명과 사랑을 향한 끝없는 탐구를 의미하며, 마침내 모든 것이 좋은 감정으로 이어지는 모든 것이 좋은 세계에 이르는 최종 결과이다.

2. 『중용의 감정과학』으로 이해하는 박(博)

『중용의 감정과학』에 의하면 박학의 博은 모든 사물이다.

‘박’의 정의는 일반적으로 통일되어 있으며, 『설문해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大通也. 從十從專. 專, 布也.⁶⁹⁾

『설문해자의증』에서 ‘大通也’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當是大也, 通也.⁷⁰⁾

넓고 깊은 이해여야 한다.

『설문해자구독』에서 ‘從十從專’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四方中央無不專也.⁷¹⁾

사방 중앙에는 분포되지 않은 것이 없다.

요약하면, ‘박(博)’은 넓고 깊은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십(十)’은 아마도 ‘방패(盾)’의 변형일 것이며, 사방 중앙의 모든 것이 갖추어진 것을 가리킨다. ‘부(專)’는 분포를 나타낸다. 이 두 글자를 합쳤을 때 사방 중앙에는 분포되지 않은 것이 없다는 뜻으로, 즉 ‘넓게 퍼져 아무것도 빠지지 않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박(博)’은 사실상 세상의 만물을 일반적으로 가리키는 것이다.

‘박’ 사상의 초기 제시에 대해선, 『논어·자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子夏曰: 博學而篤志, 切問而近思, 仁在其中矣.⁷²⁾

이 문장에서 ‘박학이독지(博學而篤志)’에 대한 이해에 관해서는, 천명결(陳明潔)은 『박학이독지, 절문이근사(博學而篤志, 切問而近思)’에 대한 해석』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69) 『說文解字』, 「卷3」.

70) 『說文解字義證』. 이 번역은 연구자의 번역이다.

71) 『說文解字句讀』. 이 번역은 연구자의 번역이다.

72) 『論語』, 「12章」.

‘박학이독지(博學而篤志)’에 대한 초기의 이해는 ‘독(篤)’을 ‘두꺼운(厚)’으로 해석하여 ‘견고하고 튼튼하다’를 의미했고, ‘지(志)’를 ‘식(識)’(번체‘식(識)’과 ‘지(志)’ 같은 뜻)으로 해석하여 ‘기억하다’라는 동사의 뜻인 zhi로 읽었으며, 전체 문장은 ‘광범위하게 배우고 굳건히 기억하다’를 의미한다.⁷³⁾

요약하면, ‘박학이독지(博學而篤志)’의 이 해석은 학습의 두 가지 측면을 강조한다. 광범위한 학습과 단단한 기억. 먼저, 학습의 범위가 광범위해야 하며, 특정 분야나 특정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둘째, 학습한 내용을 확실하게 기억해야 하며, 학습 후에도 오랫동안 유지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절문이근사(切問而近思)’의 일반적인 이해는 학습의 방법과 태도를 더 상세히 지칭한다. ‘절문’은 심층적인 탐구와 의문 제기 정신을 의미하며,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야 한다. 반면 ‘근사’는 학습 과정에서 반성과 사고의 태도를 유지해야 함을 의미하며, 학습한 지식의 내포와 의미를 깊이 이해해야 한다. ‘인재치중의(仁在其中矣)’는 이러한 학습의 최종 목적을 나타내며, ‘박학이독지, 절문이근사(博學而篤志, 切問而近思)’의 학습 방법을 통해 사람들은 지식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더불어 도덕적인 마음을 기를 수 있다. 도덕은 유가주의가 추구하는 도덕적 품질로, 학습 과정에서 추구해야 할 목표이다. 따라서 이 문장의 가장 일반적인 의미는 학습을 통해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도덕적 품성을 기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종합적인 인격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박’의 광범위한 의미가 다시 한번 강조되었으며, 그 범위는 사실상 만물을 가리킬 수 있다. 동시에 ‘학(學)’과 ‘사(思)’의 중요성이 제시되어, 최종적으로 최고의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나타낸다. 감정과학의 시각에서, 조중빈은 ‘안심논어」에서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이해한다.

|| 19-6: 사람의 정은 널리 배우고 꼼꼼히 묻는다. ||

널리 배우되 세상 사랑의 뜻을 다지고, 절실하게 묻되 스스로 생각함은 사랑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다. ⁷⁴⁾

우리는 사랑의 감정을 널리 배우고 세밀하게 질문하며, 결국은 이 세상의 사랑의 의미를 이해하고 사색한다. 이 문장은 ‘사랑’의 감정을 중요한 위치에 두었는데, 이는 ‘박’(모든 사물)에 대한 널리 알아보기와 연결된다. 우리는 표면적인 현상에만

73) 천명결(陳明潔), ‘『博學而篤志, 切問而近思』解詁 (‘박학이독지, 절문이근사’에 대한 해석) (學語文(학어문), 2023), p. 90.

※ 인용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早期對“博學而篤志”的理解, “篤”釋爲“厚”, 其意爲“堅實, 牢固”; “志”釋爲“識”(繁體“識”, 與“誌”義同), 讀音爲zhi, 是動詞“記住”的意思, 全句意爲“廣泛地學習並牢牢地記住”。

74) 조중빈, 『안심논어』 (국민대학교 출판부, 2016), p. 414.

국한되지 않고 사물의 본성을 탐구함으로써 사랑의 의미를 단호하게 이해한다. 우리는 적극적인 태도로 다른 이에게 열렬하게 질문하고, 그 후 감정에 대한 자신의 안에서 자기 스스로 생각한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마침내 사랑이 감정 안에 있다는 개념을 이해하게 된다.

『중용』에서는 ‘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誠之者, 擇善而固執之者也. 博學之, 審問之, 慎思之, 明辨之, 篤行之. 有弗學, 學之弗能, 弗措也. 有弗問, 問之弗知, 弗措也. 有弗思, 思之弗得, 弗措也. 有弗辨, 辨之弗明, 弗措也. 有弗行, 行之弗篤弗措也.⁷⁵⁾

이 문장을 가장 보편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성실한 사람은 좋은 목표를 선택하고 고집하여 추구한다. 폭넓게 배우고, 심술궂게 묻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분별하여 진실로 행하는데, 이 다섯 가지 행동은 완전한 학습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폭넓게 배우는 것은 여러 분야의 지식을 폭넓게 학습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다음으로 묻는 것은 배운 지식에 대해 깊이 탐구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다음으로는 심술궂게 생각하는 것으로, 배운 지식을 신중하게 고찰하고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분별하는 것은 지식을 판단하고 구별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진실로 행하는 것은 학습한 지식을 확고하게 실천에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이 다섯 가지를 따르지 않는다면, 자신의 부족함을 극복하고 발전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다섯 가지 행동은 상호 보완적이고 필수적이다.

성동권은 『중용의 감정과학』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문장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번역을 조중빈 선생님의 『자동중용』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느낌 따라 생각해 보고 아는 자[誠之者 = 思誠者 = 묵상]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택하여 고집하는 자이다[내 마음이 사는 방법]. 이는 널리 배우고, '하나'님께 자세히 묻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분명하게 판단하고, 죽으나 사나 독실하게 행한다. 배우지 않으면 모를까 배운다고 할 때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모를까 묻는다고 할 때는 모르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 모를까 생각한다고 할 때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며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판단하지 않으면 모를까 판단을 한다고 할 때는 좋은지 싫은지가 분명하지 않다며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모를까 행한다고 할 때는 죽으나 사나 독실하게 행한다. ⁷⁶⁾

75) 『中庸』, 「20章」.

76) 성동권, 『유교문화의 미학 중용의 감정과학』 (부크크, 2023), pp. 255-256.

여기에서는 감정과학으로 이 문장을 이해하는 방식과 보통의 이해 방식의 차이는 ‘성지(誠之)’의 해석에 있다. 『중용의 감정과학』에서 ‘성지(誠之)’를 이렇게 설명한다.

誠之者, 人之道也.⁷⁷⁾

지(誠之)의 지(之)는 성(誠)을 동사로 지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지(誠之)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誠)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중용」의 감정과학은 ‘성’(誠)을 ‘천명지성’(天命之性)으로 이해합니다.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으로 존재하는 단 하나의 실체로서 천(天)이 자기 본성을 따라서 무한한 방식으로 무한하게 몸을 낳으며 동시에 무한한 방식으로 무한하게 감정을 낳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성지’(誠之)가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무한한 감정에 나아가 그것의 본성을 영원의 필연성으로 이해하고, 그것으로 감정을 느끼는 무한한 몸에 나아가 몸의 본성을 영원의 필연성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지(誠之)는 감정을 느끼는 때 순간을 최고의 완전성으로 끊임없이 배워서 이해하는 인간 정신의 축복입니다.⁷⁸⁾

요약하면, 『중용』의 감정과학은 ‘성’(誠)을 ‘천명지성’(天命之性)으로 이해한다. 여기서의 ‘천(天)’은 영원하고 무한한 생명과 사랑 속에 존재하는 유일한 실체를 가리킨다. 천은 본성에 따라 끝없이 몸을 만들어내고 동시에 감정을 끝없이 만들어낸다. 이것이 바로 ‘천명(天命)의 본성’이다. 이러한 이해를 통해 ‘성지(誠之)’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즉, 끝없는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함으로써 그 본성을 영원한 필연성으로 이해하고, 이러한 감정의 끝없는 몸을 느끼는 것을 통해 몸의 본성 역시 영원한 필연성임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지(誠之)’란 인간의 영혼이 감정의 때 순간을 끊임없이 학습하고 이해하는 데에 있어 완벽한 성취이다.

이상의 내용에서 이 문장은 ‘성지(誠之)’의 감정 과학적 개념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며, 감정과 몸 사이의 관계를 강조하며, 감정을 계속해서 학습하고 이해함으로써 내면의 완전성을 달성하는 최종 결과를 강조한다.

『중용의 감정과학』에서 위의 문장을 이렇게 이해한다.

그러므로 ‘성지’(誠之)는 의지력이 아니라 영원의 필연성을 생각하고 배우는 인간 정신의 본질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학, 심문, 신사, 명변, 독행’은 의지력이 아니라 명백하게 이해하는 인간 정신의 성스러운 그 자체입니다. 인간 정신은 알 수 없다는 불가지(不可知)를 절대적으로 용납하지 않으며, 더 나아가 명명백백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명백하게 이해하기 전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이해는 무한하게 변화하는 감정과 그 감정을 느끼는 몸의 무한 변화에 대한 분명한 이해입니다. 이 이해가 왜 소중한 것일까요? 이 물음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오직

77) 『中庸』, 「20章」.

78) 성동권, 『유교문화의 미학 중용의 감정과학』 (부크크, 2023), pp. 254-255.

이 이해만이 감정을 느끼는 우리 자신의 행복을 '영원무한'으로 보증하는 방법이며, 동시에 학문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⁷⁹⁾

성동권은 '성지(誠之)'가 의지력이 아니라 영원한 필연성에 관한 생각과 학습이 인간 정신의 본성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인간 정신의 본성은 영원한 필연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박학, 심문, 신사, 명변, 독행'은 결국 인간 정신의 본성을 명확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이해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성이다. 이는 무한히 변화하는 몸과 무한히 변화하는 감정을 통해 끝없이 생겨나고 변화하는 무한한 존재이다. '박학'에서는 인간 정신의 영원한 성을 배우고 이해해야 하며, 이러한 영원한 필연성은 무한히 변하는 몸과 무한히 변화하는 감정을 통해 끝없이 존재하고 변화함으로써 모든 것의 '순수지선(純粹至善)'에 도달할 수 있다.

3. 『중용의 감정과학』으로 이해하는 학(學)

중용의 감정과학에 의하면 박학의 學은 모든 사물의 본성을 이해하는 것이다. '박'을 모든 사물로 정의한다면, '학'은 이러한 모든 사물의 본성을 이해하고 배우는 것으로, 결국에는 완전히 좋은 세계를 찾기 위한 노력이다.

‘학’ 사상의 제시에 대해선, 『논어』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子曰：學而時習之，不亦說乎。⁸⁰⁾

이 문장의 일반적인 이해는 ‘공부하고 자주 복습하는 것은 정말 즐거운 일이 아니다.’이다. 그는 학습의 중요성과 지속적인 학습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학습은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되어야 하며, 반복적인 학습과 실습을 거치면서만 지식을 실제로 이해하고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수 있으며 만족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조중빈은 『안심논어』에서 이 문장에 대한 이해를 쓴다.

|| 1-1: 마냥 배우며 사니까 기쁘지 않을 수 없다. ||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나’ 잘하고 있고, 알고 보면 살만한 세상이니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⁸¹⁾

79) 성동권, 『유교문화의 미학 중용의 감정과학』 (부크크, 2023), p. 256.

80) 『論語』, 「12章」.

81) 조중빈, 『안심논어』 (국민대학교출판부, 2016), p. 25.

위의 내용에 따라 이 문장의 이해는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기 때문에 기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이다. 공자는 ‘자신이 잘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세상이 살만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기쁨을 느끼지 않는가’라고 말한다.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점이 강조된다. 하나는 지속적으로 배우고 성장하여 기쁨을 얻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자신이 잘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 세상이 살만하다는 것을 자각할 때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감정과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위 문장은 계속해서 배움으로써 올바른 자기 이해를 하게 되고, 결국 이것이 아름다운 세상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지식에 대한 학습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 마음을 쏟는 것이 진정한 의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학습은 무엇을 배우는 것인가. 이에 대한 답변은 이미 상기되었다. ‘박’은 모든 사물의 본성을 배우고, 최종적으로 모든 사물의 본성을 이해하는 것이다. 사물의 본성에 대해, 『중용의 감정과학』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⁸²⁾

여기에서 핵심은 ‘솔성’(率性)입니다. 천명지성(天命之性)은 몸-생김의 진실입니다. 지금 ‘나’의 몸-생김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이 천명(天命)이며, 그것을 성(性)이라 합니다. 내 몸의 본성(性)은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으로 존재하는 단하나의 실체로서 천(天)을 자기 안에 영원의 필연성(命)으로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몸의 생명(命)을 천(天)에 고유한 본성으로서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으로 이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이 몸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천명지위성’(天命之謂性)입니다. 그런데 「중용」은 그에 이어서 ‘솔성’(率性)을 이야기합니다. 성(性)은 지금 우리 자신의 ‘몸’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체의 ‘몸’이기 때문에 솔성(率性)은 천명(天命)의 ‘몸’ 또는 실체가 자신의 ‘몸’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⁸³⁾

감정과학의 시각에서 사물의 본성은 몸과 감정의 본성을 가리킨다. 그리고 ‘나’의 몸-생김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은 천명(天命)이고 성(性)이다. 그래서 나의 몸의 본성은 영원한 무한한 필연성이다. 이러한 몸의 본성의 필연성은 천(天)에 따라 따라다니며, 영원한 무한한 생명과 사랑이다. 그리고 솔성(率性)은 천명에 따라 살아가는 몸이나 천에 따라 살아가는 몸을 이해하는 것으로, 이를 도(道)라고도 한다. 이것은 몸-놀이 실현해야 하는 진리로 이야기할 수 있으며, 동시에 그 본성은 영원한 무한한 필연성을 가지고 있다.

82) 『中庸』, 「1章」.

83) 성동권, 『유교문화의 미학 중용의 감정과학』 (부크크, 2023), p. 163.

동시에, 성동권은 『중용의 감정과학』에서 ‘박’에 대한 감정과학의 이해를 『중용』의 배움(敎)에 대한 정의를 통해 명확히 하려고 한다.

① 修道之謂敎.⁸⁴⁾

무한한 방식으로 무한하게 생겨나고 놀이하는 감정을 그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으로서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으로 배워서 이해하는 것이 학문(敎)이다.⁸⁵⁾

‘도(道)’를 감정으로 이해하면, 『중용』은 감정을 배우는 학문이다. 무한한 방식으로 감정을 무한하게 생기며, 그것의 고유한 본성인 영원한 무한한 생명과 사랑을 추구한다. 이러한 생명과 사랑을 이해하고 배우는 것, 즉 마음이 감정에 대해 자기 스스로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배움(敎)이다.

② 自誠明, 謂之性. 自明誠, 謂之敎.⁸⁶⁾

자기 몸에 대한 타당한 인식이 몸-생김의 진실로서 천명지성(天命之性)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다. (그러므로) 감정에 대한 참다운 이해로 몸에 대한 타당한 인식을 형성하는 것이 배움(敎)이다.⁸⁷⁾

자신이 ‘천명지성(天命之性)’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몸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자명성(自明誠)’은 감정을 이해함으로써 몸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형성하는 것이며, 이것 또한 배움(敎)이다. ‘자명성(自明誠)’의 최종 결과는 몸에 대한 ‘순수지선(純粹至善)’의 이해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 문장은 감정을 진정으로 이해함으로써 자신의 몸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를 형성하고, 이러한 이해를 천명의 성에 대한 명확한 이해로 간주하는 것을 강조한다. 이는 몸의 본성의 필연성을 배우는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며, 무한한 영원한 생명과 사랑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여기까지 감정과학은 ‘박학’개념을 완전히 명확하게 했다. ‘박학’은 모든 사물의 본성을 이해하고 배우는 것이다. 자신의 마음을 통해 감정에 대한 자기 스스로 이해를 통해 진정한 감정을 인식하고, 결국 모든 것이 좋은 세계에 이르는 것이다. 『중용의 감정과학』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감정의 현상을 해석하지 않고 그것의 본성을 영원의 필연성으로 명백하게 이해하는 학문이 유교문화의 『중용』입니다. 그 결과 감정의 순수지선을 확인합니다. 이것

84) 『中庸』, 「1章」.

85) 성동권, 『유교문화의 미학 중용의 감정과학』 (부크크, 2023), p. 236.

86) 『中庸』, 「21章」.

87) 성동권, 『유교문화의 미학 중용의 감정과학』 (부크크, 2023), p. 249.

이 ‘감정과학’의 ‘감정미학’입니다. 다 좋은 감정, 그렇기 때문에 다 아름다운 감정입니다. 마찬가지로 다 좋은 몸, 그렇기 때문에 다 아름다운 몸입니다.⁸⁸⁾

‘중용’은 사실상 감정(몸)의 본성의 필연성을 명확히 이해하는 학문이다. 마음은 외부 현상을 설명하지 않고 내부에서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이해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감정을 적절히 이해하고 사물(몸, 감정)의 ‘순수지선(純粹至善)’을 이해한다. 이것 또한 감정과학을 기반으로 한 감성 미학이다. 모든 좋은 감정과 모든 좋은 몸은 모두 아름답다.

이러한 모든 좋은 감정과 몸이 결국 모두 좋은 세계를 형성하고, 이것이 ‘박학’의 최종 결과이다. 몸과 감정은 무한한 방식으로 무한하게 존재하며, 사물의 본성의 필연성을 이해하기 위해 마음을 사용하고, 영원한 무한한 생명과 사랑을 추구함으로써 마침내 최고의 행복을 이룬다.

88) 성동권, ‘유교문화의 미학 중용의 감정과학’ (부크크, 2023), p. 239.

제4장 감정과학에 기초한 박물관의 본성

본 논문의 핵심 주장은 인간의 본성을 기반으로 박물관의 본질을 이해하고, 박물관의 미학적 내재를 이해하는 것이다. 제2장과 제3장의 요약으로, 세상 모든 것은 순수지선으로 존재한다. 즉, ‘박’과 ‘물’의 이해에 관한 것이다. 인간의 감정도 순수지선으로 존재한다. 순수지선으로 존재하는 인간의 감정은 자연의 순수지선을 이해함으로써 그 이해를 표현한 모든 것이 박물관에 있다. 이 사실을 배우는 것이 대학의 격물치지이며 중용의 박학이다. 박물관의 미학은 인간이 만들어 낸 모든 것의 아름다움을 탐구하는 것이다. 본 장은 박물관의 기원, 교육적 기능, 그리고 박물관의 아름다움과 성스러움을 통해 인간 정신의 영원한 주제를 탐구할 것이다.

제1절 박물관의 기원과 교육적 기능

1. 박물관의 기원

박물관의 기원에 대해서는 다시 이 질문으로 돌아가야 한다. 인류는 무엇 때문에 박물관을 건립하는가? 답은 인류가 자신의 정신이 영원하다는 것을 깨달아서 박물관을 건립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인류 정신의 영원함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그 핵심은 인류의 본성에 있다.

『중용의 감정과학』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天命之謂性.⁸⁹⁾

천(天)은 존재하는 모든 사물(事物)을 정립(命)하는 것으로서 사물(事物)이 자기 안에 품고 있는 본성의 필연성(性)이다.⁹⁰⁾

위의 내용에 따르면, ‘성(性)’의 개념은 필연성으로 설명된다. 이는 각 사물이 고유한 본성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본성이 피할 수 없이 자연스럽게 사물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천(天)’은 모든 존재를 구축하는 필연성을 갖는 고유한 본성을

89) 『中庸』, 「1章」.

90) 성동권, 『유교문화의 미학 중용의 감정과학』 (부크크, 2023), p. 33.

의미한다. 따라서 모든 것은 ‘천’을 따라 존재하며, 자신의 본성을 갖고 있다. 이 본성이 바로 필연성이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본성도 필연성의 표현이다.

‘중용의 감정과학’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한다.

自誠(= 天命) 明 謂之性.⁹¹⁾

모든 물(物=몸)은 ‘영원의 필연성’(天)으로 존재하도록 ‘결정’(命)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이해하는 것이 자기 몸의 진실이다.⁹²⁾

조중빈은 이 문장을 이렇게 이해한다.

스스로 느낌이 밝은 것을 일러 내 몸[性]이라 하고⁹³⁾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물(物)’을 몸으로 이해하고, ‘천(天)’을 영원무한의 필연성으로 간주한다. 인간의 본성은 사물의 본성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을 추구한다. 이것은 인간 자신이 마음으로 감정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이다. 그 결과로써 본성의 필연성을 이해한다. 감정과학의 공리에 따르면, 인간 정신은 몸의 이해를 인과관계의 기초로 한 영원무한의 필연성으로 인식한다. 감정은 몸을 따라 발생하기 때문에 인간 정신은 감정을 영원무한하게 이해한다. 이 결과는 인간 정신이 또한 영원무한하다는 것을 입증한다. 인간 정신은 감정의 이해를 통해 영원무한하고, 그래서 감정을 가진 모든 것을 보존하고 수집하려는 욕구가 박물관의 최종 형태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먼저 명확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인간의 정신이 자신의 몸 없이는 결코 생겨날 수 없다는 것이다. 자신의 몸이 있기 때문에,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인간의 본성에 따라, 인간의 정신은 몸을 인과관계의 필연성으로 이해한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의 몸이 나의 몸을 낳았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의 몸도 그들의 부모에게서 낳아졌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인류가 대대로 전해온 것으로, 이는 영원무한한 생명과 사랑이다. 이것이 인간 정신이 영원무한한 증명이다. 또한 감정은 몸의 변화이며, 몸을 따라 발생하기 때문에 인간의 정신은 감정에 대한 이해도 영원무한한다.

인간의 감정에 대한 이해는 인간 정신의 본성에 있으며, 이러한 이해는 인과관계의 필연성에 기초한다. 자신의 감정을 이해할 때, 감정은 완전히 인과관계의 필연

91) ‘中庸’, ‘21章’.

92) 성동권, ‘유교문화의 미학 중용의 감정과학’ (부크크, 2023), p. 79.

93) 성동권, ‘유교문화의 미학 중용의 감정과학’ (부크크, 2023), p. 79.

성을 따른다. 그러므로 인간 정신은 자기 스스로 이해를 필연성에 위치시킨다. 그러나 필연성은 우연한 다양성이 아니라 유일성을 가리킨다. 따라서 필연성은 영원무한함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감정의 필연성을 이해하는 인간 정신으로부터, 정신의 본성은 영원한 무한함이며, 인간의 본성도 영원한 무한함이어야 한다.

이 사실을 기반으로, 박물관의 본성을 이해할 수 있다. 감정과학의 관점에서 볼 때, 박물관의 본성은 인간의 본성을 반영하고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먼저, 인간 정신의 본성이 영원무한함을 인식해야 한다. 이는 인간이 세계를 탐구하고 이해할 때, 영원성의 본성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람들이 박물관에 대해 생각하고 창조하는 것은 실제로 인간 본성과 감정을 이해하는 데서 비롯된다. 이 의미에서, 박물관은 단순히 물건을 전시하는 장소가 아니라 인간의 감정과 인식을 상징하는 공간이다. 다양한 물품과 문화유산을 수집, 전시 및 해석함으로써 박물관은 인간 본성과 감정을 반영하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그것은 인간의 역사, 문화 및 감정의 흔적을 보존하여 과거를 회상하고 현재를 사색하며 미래를 전망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박물관은 인간 감정을 저장하고 사물의 본성을 탐구하는 장소로 위치하고 있다.

박물관에서 사람들은 단순한 관람자에 그치지 않고 참여자이자 공동 창조자이다. 그들은 전시품을 관찰, 생각하고 소통함으로써 자신의 감정과 생각과 공감하며 자신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깊이 있게 한다. 그러므로 박물관은 단순히 역사와 문화를 전시하는 곳뿐 아니라 인간의 감정과 지혜를 일깨우는 성당이며, 인간 정신이 영원을 향한 탐구와 탐색을 반영한다. 마치 박물관이 수천 년의 역사를 한 공간에 압축해 놓은 것처럼, 사람들은 짧은 시간 안에 고대 문명에서 현대 사회에 이르기까지의 발전 과정을 둘러볼 수 있다. 이 시간의 압축은 전시품을 통해 인간 역사의 유구함과 인간 감정의 형성을 표현하며, 이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또한 박물관은 전 세계 각지, 각 시대의 다양한 문화와 예술 작품을 전시하여, 인간 문명의 풍부하고 다채로움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이 마음을 통해 감정을 이해하고 전시품에 대한 올바른 감정적 인식을 형성하여 진정으로 인류 문명과 예술을 이해하게 한다.

2. 박물관의 교육적 기능

인간 정신의 영원한 본성을 기반으로 박물관의 본성을 이해한다면, 박물관이 단순히 ‘물건’의 간단한 종합이 아니라 한 개의 학교임을 이해할 수 있다. 지금까지도

박물관은 각종 중·소학교의 교외수업 장소이다. 그것의 교육적 가치를 극대화하려면, 박물관이라는 이 학교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마침내 배우게 될 것은 무엇인지를 감정과학의 관점에서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중용의 감정과학』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君子, 尊德性而道問學.⁹⁴⁾

감정에 대한 참다운 인식을 추구하는 사람은 몸-생김(性)에 대한 참다운 인식으로 몸-놀이의 본성을 이해한다(尊德性). 이 이해에 근거하여 무한한 방식으로 무한하게 생성하고 변화하는 감정에 나아가 그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을 묻고 배운다(道問學).⁹⁵⁾

위의 내용에 따르면, 박물관 안에서 몸-성(性)의 진실을 통해 몸-놀이를 진행한다. 사물의 고유 본성의 필연성을 배우고, 궁극적으로 감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완성한다. 이것은 박물관을 학교로서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며, 또한 제2장과 제3장에서, 감정과학에서 ‘격물치지’와 ‘박물’을 이해하는 것이다. 무한한 방식으로 몸을 통해 생성된 무한한 감정을 통해 ‘학문’이 추구하는 것이 사물의 고유 본성의 필연성임을 확인한다. 그래서 박물관은 사물의 본성을 배우는 학교이다.

그럼 박물관이 학교에서, 최종적으로 배우게 되는 결과는 무엇인가? 답은 사물의 본성을 인식함으로써 사물의 아름다움을 배운다. 어떻게 사물의 아름다움을 이해해야 하는가, 『대학의 감정과학』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蓋此心既立, 由是誠意正心以修其身, 則所謂先立其大者, 而小者不能奪.⁹⁶⁾

비로소 생각하는 마음이 자기 본성의 필연성을 따라서 생각하는 경(敬)의 마음으로 분명할 때, 이 마음이 감정의 존재를 영원의 필연성으로 긍정하고[誠意], 그 긍정 안에서 감정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을 이해합니다[正心]. 그 결과 마음은 자기 몸이 느끼는 감정에 대한 타당한 이해를 형성합니다. 그렇게 하면 무한한 방식으로 무한한 감정은 자기 존재에 관하여 영원의 필연성 그 자체로 이해되며, 그러한 한에서 모든 감정은 본래부터 순선무악(純善無惡)입니다[先立其大]. 이렇게 감정에 대한 우리 마음의 이해가 명석판명 그 자체로 완전할 때, 무한한 방식으로 무한한 감정의 현상은 순수지선(純粹至善) 그 자체로 존재하는 감정의 진실을 절대로 은폐할 수 없습니다[小者不能奪].⁹⁷⁾

94) 『中庸』, 「27章」.

95) 성동권, 『유교문화의 미학 중용의 감정과학』 (부크크, 2023), pp. 273-274.

96) 『성학십도』, 「제5도 대학도」, 도설.

97) 성동권, 『유교문화의 학문 대학의 감정과학』 (부크크, 2022), p. 152.

위에 ‘순수지선(純粹至善)’의 개념을 언급한다. 무한한 방식으로 무한한 감정을 자신의 존재에 대한 영원한 필연성 몸으로 이해할 때, 그렇다면 모든 감정은 ‘순선무악(純善無惡)’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올바르게 철지한 자아 이해를 통해, 결국 모든 감정은 ‘순수지선(純粹至善)’의 진실로 드러날 것이다. 마음이 감정을 진정으로 이해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사물의 본성인 ‘순수지선(純粹至善)’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 사물의 아름다움을 배우는 것이다.

‘중용의 감정과학’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한다.

故君子，以人治人，改而止.⁹⁸⁾

그러므로 감정의 진실을 배우며 이해하는 사람은 자기의 감정에 고유한 진실에 근거하여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며, 그렇게 감정을 향한 올바른 인식을 확인함으로써 다 좋은 세상을 누린다.⁹⁹⁾

위의 이해는, 감정의 진실에 대한 학습을 통해, 자신의 내부에서 감정을 진정으로 이해함으로써, 좋은 세계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좋은 세계는 사물의 본성인 ‘순수지선’과 아름다움이다. 마음이 몸의 본성의 필연성을 이해함으로써, 영원무한한 생명과 사랑이다. 영원무한한 생명과 사랑보다 더 순수하고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 있는가? 감정은 몸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며, 몸의 변용이다. 그러므로 감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순수지선’이어야 한다. 박물관 안에서, 자신의 내부에서 모든 존재의 본성에 대한 이해와 학습을 통해, 사물의 순수지선의 감정을 이해하고 배우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진정한 감정을 이해함으로써,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물 안에서 내재된 다른 사람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하고, 따라서 사물의 본성을 더 깊이 이해하고 평가함으로써, 사물의 본성의 필연성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박물관 안에서는 대상을 감각적인 현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적인 현상으로 드러나는 대상을 그 자신의 고유한 본성으로 이해함으로써 그것의 순수지선을 깨닫게 된다. 인간 정신의 영원한 본성으로 인해 자신의 몸의 존재를 확인하고, 마음을 통해 감정을 올바르게 이해한다. 이러한 영원성에 대한 인식은 사물과의 감정적인 연결을 느끼게 하며,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한다. 마음이 자연스럽게 사물에 대해 스스로를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은 사물의 본성을 이해하고 학습하는 것이며, 또한 순수지선의 감정을 이해하고 배우는 것이다. 이러한 순수지선에는 좋은 감정과 최고의 행복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추구하는 궁극

98) 『中庸』, 「13章」.

99) 성동권, 『유교문화의 미학 중용의 감정과학』 (부크크, 2023), p. 267.

적인 목표이다.

그래서 박물관은 영원무한의 필연성 안에서 사물의 본성을 이해하고, 그 결과로 사물의 순수지선을 가르치는 학교이다. 우리는 박물관 안에서 몸의 변화를 통해 감정을 얻고, 자기 학습, 사고 및 이해를 통해 사물의 본성과 진실을 깊이 파악하여, 감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완성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순수지선의 감정을 이해하고 추구함으로써, 더욱 아름다우고 풍요로운 박물관 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

요약하면, 감정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박물관의 교육적 기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은 대상 사물의 순수지선을 이해하는 정신력을 기르는 것이다. 박물관 내부는 공간 디자인에 음향, 시각 및 촉각 등 다양한 신체 감각 자극을 추가하여 관중의 감정 참여도를 촉발할 수 있다. 동시에, 전시물과 관중 간의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감정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재미있고 혁신적인 전시 방식인 전시물의 AI 프로젝트션과 관중의 상호작용을 통해, 관중은 전시물과의 사진을 찍거나 상호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시물을 전시대에서 ‘부활’시켜 관중이 전시물의 실제 존재를 체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박물관의 공간은 학교로서 고유한 전시 방식을 통해 관중이 더 나은 감정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결국 대상 사물의 ‘순수지선’을 이해하고 배우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박물관 교육 기능의 진실이다.

제2절 박물관의 아름다움과 성스러움

1. 박물관의 아름다움

본문의 주제는 박물관의 미학은 인간이 만들어 낸 모든 것의 아름다움을 탐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박물관의 아름다움에 대한 개념에 대해, 앞서 언급한 대로, 사물의 본성인 ‘순수지선(純粹至善)’을 이해하는 것이며, 그래서 박물관은 순수지선으로 존재하는 사물의 집합체로 정의될 수 있다.

『중용의 감정과학』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中也者, 天下之大本也. 和也者, 天下之達道也. 致中和, 天地位焉, 萬物育焉.¹⁰⁰⁾

100) 『中庸』, 「1章」.

감정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으로서 천명(天命=中)은 무한한 방식으로 무한하게 생성하고 변화하는 감정 세상의 근본이다(天下之大本). (그렇기 때문에) 영원의 필연성 안에서 무한성으로 존재하는 감정은 순수지선의 감정(和)이고, 이 감정의 진실을 부정하는 감정은 절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天下之達道). 이렇게 감정에 대한 참다운 이해를 형성하는 것(致中和)이 자기 진실로서 천(天)을 이해하는 것이며(天地位焉) 동시에 자연의 천지만물에 대한 참다운 이해를 형성하는 것이다(萬物育焉).¹⁰¹⁾

위의 내용에 따르면, 여기서 다시 한 번 확인되는 것은 영원한 필연성 안에 무한히 존재하는 감정이 ‘순수지선(純粹至善)’의 감정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감정에 대한 진정한 이해는 천(天)의 형성에 대한 진정한 이해이자 자연의 만물이 형성되는 진정한 이해이다. 만약 인간의 감정을 순수지선의 존재로 본다면, 세상 모든 것은 순수지선으로 존재한다. 자연의 순수지선을 이해하는 인간의 감정이 표현된 모든 것이 박물관에 있다.

박물관 안에서는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이 인간의 감정을 내포하고 있다. 인간은 마음을 통해 자신 안에서의 자기 생각과 자기 이해를 통해 이러한 자연적인 사물과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을 탐색하고 배운다. 즉, 박물관 안의 모든 사물은 사실상 모든 것의 순수지선을 탐구하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박물관이 순수지선으로 존재하는 사물의 집합체임을 확인한다. 이것이 박물관의 아름다운 진실이다.

‘중용의 감정과학’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한다.

子曰：回之爲人也，擇乎中庸，得一善，則拳拳服膺而弗失之矣。¹⁰²⁾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연(同=사람)은 몸으로 살아가며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므로 중용으로 자기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 결과 감정의 순수지선을 이해한다. 이것으로 자기 몸의 순수지선을 이해하므로 자신의 순수지선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¹⁰³⁾

위에 설명한 것에 따르면, 인간은 몸을 통해 삶을 유지하고 감정을 얻는다. 중용을 통해 감정에 대한 자기 이해를 하게 되면, 결국 감정의 순수지선을 이해하게 된다. 제3장에 따르면 ‘중용’은 본성의 영원한 필연성을 명확히 하는 학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 다시 한 번 입증되는 것은 본성의 필연성 안에서 감정이 순수지선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순수지선은 좋은 감정, 아름다운 감정이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몸(감정)의 순수지선을 확인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순수지선을 확인한다. 즉, 박물관 안에서 감정의 순수지선을 이해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좋고 아름다운

101) 성동권, 『유교문화의 미학 중용의 감정과학』 (부크크, 2023), p. 288.

102) 『中庸』, 「8章」.

103) 성동권, 『유교문화의 미학 중용의 감정과학』 (부크크, 2023), p. 239.

운 감정을 이해한다.

이러한 박물관의 아름다움은 인간과 사물이 함께 박물관에서 구축한 것이다. 먼저, 박물관에 전시된 모든 물건은 인간의 감정의 깊이를 내포하고 있다. 고대 유물, 미술품 또는 과학적 발견이든, 모두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며, 아름다움, 진실 및 가치를 추구하는 인간의 표현이다. 따라서 박물관에서 전시된 모든 것은 내재적으로 아름다운 품질을 갖추고 있다. 둘째, 인간은 박물관 내 사물의 본성의 필연성을 탐구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순수지선의 감정을 이해하게 된다. 사람들은 감정을 자기 이해함으로써 전시물 뒤의 감정과 의미를 이해하고, 시대나 세계의 아름다움과 가치, 감정의 아름다움과 행복을 깨닫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순수지선(純粹至善)’에 대한 이해는 전시물 자체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전시물에 대한 지각과 이해 과정에서 나타난다. 결국은 이러한 좋은, 아름다운 감정이 전체 박물관 공간을 형성한다. 박물관은 인류의 문화 유산을 전시하고 계승하는 장소로서 중요한 역사적 임무를 갖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문화 교류의 플랫폼뿐만 아니라, 인간의 감정과 정신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이는 아름다운 공간이다.

2. 박물관의 성스러움

박물관의 성스러움은 인간 정신의 영원성을 확인한다.

스피노자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의 정신은 신체와 함께 완전히 파괴될 수 없고, 오히려 그 중의 영원한 어떤 것이 존속한다.¹⁰⁴⁾

위의 내용에 따르면, 인간의 정신은 신체의 소멸에 따라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영원히 남아있게 된다. 이것이 인간 정신의 영원성이다. 또한 이것이 박물관의 성스러움이다. 그렇다면 인간 정신의 영원성을 증명하는 방법은 다음 두 가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박물관의 모든 물건, 박물관 자체를 포함하여, 모두가 인간의 정신을 담고 있다. 이러한 정신은 역사와 문화의 변천 중에 현실적인 형태로 이어져오며, 문화유산으로서 박물관에 남게 된다. 따라서 박물관은 단순히 인간의 지혜와 역사적 산

104) 스피노자, 황태연 역, 『에티카』, (피앤비, 2011), p. 351.

물을 보존하는 곳뿐만 아니라, 감정과 인식의 필연성을 반영하는 공간이다. 여기서 말하는 감정과 인식의 필연성은 인간의 정신이 단순한 물질적 존재를 넘어서 영구적으로 보존되고 표현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박물관에서 그 영원무한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둘째, 인간 정신은 몸의 본성의 필연성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중용의 감정과학』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君子之道，造端乎夫婦。及其至也，察乎天地.¹⁰⁵⁾

자기 몸의 진실을 배우는 사람은 그 방법을 ‘부부’에 나아가 생각한다. 부부에 나아가 생각해 보면, 영원성 그 자체로 존재하는 단 하나의 필연성은 생명이 사랑으로 새로운 생명을 낳는다는 진리이다. 그러므로 몸(物)으로 생겨나 놀이하는 모든 것은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 안에서 무한한 방식으로 무한하게 생겨나고 놀이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¹⁰⁶⁾

여기에는 몸의 본성의 진실이 설명되어 있다. 나는 내 존재가 내 아빠와 엄마가 나를 낳아준 덕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나 자신의 몸을 가지고 있으며, 내 몸으로 삶을 살고, 몸으로 놀이하며, 감정의 존재를 이해한다. 생명은 사랑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으며, 이러한 몸의 본성의 필연성은 영원히 끝없이 이어지는 것이다. 몸-놀이를 진행할 때, 이러한 영원한 무한한 생명과 사랑을 느낄 수 있다. 영원무한한 생명과 사랑 안에서 무한한 방식으로 무한한 감정을 만들어낸다.

인간 정신은 자신의 몸의 존재를 확인하고, 몸의 존재의 진실을 이해한다. 이것은 우연한 결과가 아니라 원인과 결과의 필연성이다. 몸의 본성의 필연성을 이해함으로써, 인간 정신은 자신과 몸의 밀접한 관계를 인식하고, 몸의 본성이 영원무한함을 이해하며, 감정의 이해도 영원무한함으로 여긴다. 몸이 영원무한함을 고려할 때, 인간 정신도 몸의 영원무한함을 따라 감정의 순수지선을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 정신 또한 영원함이다.

박물관의 성스러움을 이해하는 것은 인간 정신의 영원한 주제를 확인하는 것이다. 박물관 안에서 사물의 본성의 필연성을 탐구함으로써 사물의 순수지선을 배우고, 더 나아가 모든 좋은 감정을 느끼며, 인간 정신의 존재를 이해한다. 이러한 사물의 본성의 탐구와 이해는 실제로 인간 정신의 본성과 의미를 탐구하고 확인함으로써 인간 정신의 영원성을 확립한다. 박물관은 공간으로써 영원히 끝없이 인간 정신에 감정적 가치를 부여한다. 박물관에서 전시물은 물질적인 유물뿐만 아니라 인간의

105) 『中庸』, 「12章」.

106) 성동권, 『유교문화의 미학 중용의 감정과학』 (부크크, 2023), p. 93.

지혜와 감정의 연속이기도 한다. 이러한 전시물의 탐구와 감상을 통해 영원무한한 인간 정신이 부여한 감정적 가치를 느낄 수 있고, 아름다운 감정을 체험하여 인간 정신의 존재를 더 깊이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다. 이 사실은 박물관을 물질적 세계를 초월하는 상징으로 만들어, 인간의 지혜와 감정의 영원한 아름다움을 전시한다.

제5장 결론

박물관은 인간의 문화유산과 감정표현의 중요한 장소로, 인간 역사상 필수적인 요소이다. 박물관 안에 있는 모든 유물과 작품은 스스로와 그 뒤에 숨은 창작자들의 이야기와 감정을 담고 있으며, 각 국가의 다른 시대의 사회와 문화를 나타낸다. 사람들은 박물관 내 전시품을 이해함으로써 공간의 제약을 초월하여 세계와 대화할 수 있으며, 때로는 시간을 초월하여 과거와 미래와 대화할 수도 있다. 현대인이 박물관 문화를 더 잘 이해하고, 현대 박물관의 존재 가치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 사람들이 박물관에서 전 세계적인 인간의 힘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연구 방법으로 감정과학을 선택하였다. 인간 본성의 필연성을 통해 박물관의 본성을 이해하고, 박물관의 미학적 의미를 이해한다. 결과적으로 인간 정신의 영원한 이 최종 주제를 밝혀낸다.

인간은 무엇 때문에 박물관을 건립하는가? 이것이 이 논문이 항상 찾고 있던 답이다. 인간은 자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삶을 살고, 자기 스스로를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으며, 감정의 진실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의 본성에 대한 생각은 인류 정신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인간 정신은 몸의 본성을 결과적으로 인과 관계의 필연성으로 이해한다. 즉, 아빠와 엄마의 몸이 나의 몸을 낳았고, 내 아빠와 엄마의 몸도 그들의 부모들에 의해 낳아졌다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인간 세대 간의 전승에서 나오는 것이며, 이것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생명과 사랑을 안고 있다. 감정과학의 공리에 따르면, 인간 정신은 몸의 이해를 인과 관계의 기반으로 한 영원한 무한의 필연성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감정은 몸과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인류 정신의 감정에 대한 이해도 영원히 무한하다. 그 결과로 인간 정신 역시 영원히 무한함을 입증한다. 인간 정신의 영속성으로 인해 박물관 공간이 만들어진다.

이 사실을 바탕으로, 박물관의 본성에 대한 이해를 형성한다. 박물관은 최종적으로 인간 감정을 저장하는 공간으로 정의되며, 사물의 본성을 배우는 학교이다. 감정과학을 통해 유교 서적인 『대학』에서 나오는 ‘격물치지(格物致知)’ 개념을 이해하면, 주자의 ‘격물치지(格物致知)’는 ‘물(物)’, 즉 감정의 본성의 필연성이 영원히 무한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한다. 박물관에서 자신의 존재하는 몸을 활용하여, 자기 안에서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이해함으로써 사물의 본성의 필연성을 탐구하고, 감정의 인식 개념을 명백하게 형성하고, 감정을 적절하게 배우고 이해함으로써 사물의 ‘순수지선(純粹至善)’을 이해한다. 이것이 ‘격물치지(格物致知)’이다. 마찬가지로

로, 『중용』에서 ‘박학(博學)’ 개념을 이해하는 것처럼, 박물관에서 모든 사물의 본성의 필연성을 배우고 있다. 마음은 외부 현상을 설명하지 않고 자기 안에서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이해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사물의 ‘순수지선(純粹至善)’을 이해한다. 즉, 모두 좋은 감정과 좋은 몸을 이해한다. 몸과 감정은 무한한 방식으로 무한히 존재하며, 사물의 본성의 필연성을 이해하기 위해 마음을 통해 영원히 무한한 생명과 사랑을 추구함으로써 최고의 행복을 달성한다. 이것이 본 논문이 표현하려는 박물관의 미학적 의미이다.

그러므로, 박물관의 미학은 인간이 만들어 낸 모든 것의 아름다움을 탐구하는 것이다. 모든 것은 순수지선으로 존재한다. 인간의 감정도 순수지선으로 존재한다. 순수지선으로 존재하는 인간의 감정이 자연의 순수지선을 이해함으로써 그 이해를 표현한 모든 것이 박물관에 있다. 박물관은 단순한 ‘물(物)’의 집합체가 아니라, 물질적 세계를 초월하는 상징이며, 인간 정신과 감정의 연장 공간이다. 박물관 안에서, 마음은 감정에 대한 자기 안에서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이해함으로써 전시물 뒤에 담긴 감정과 의미를 배워야 하고, 궁극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물의 ‘순수지선(純粹至善)’을 이해한다. 오직 이렇게 하면, 박물관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인간 정신과 감정이 모이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여기게 된다. 박물관 안에서 다양한 시대나 전체 세계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깨닫고, 완전함의 감정의 아름다움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

참고 문헌

1. 원전

- 『대학(大學)』
- 『중용(中庸)』
- 『대학장구(大學章句)』
- 『주자어류(朱子語類)』
- 『성학십도(聖學十圖)』
- 『백록동서원학규(白鹿洞書院學規)』
- 『설문해자(說文解字)』
- 『설문해자의증(說文解字義證)』
- 『설문해자구독(說文解字句讀)』
- 『논어(論語)』

2. 저서

- 귀칭샹(郭清香). 2003. 『博學有恥, 求實創新－論顧炎武的學術道德思想(박학유치, 구실창신－고염무의 학술도덕 사상)』. 중국: 求是學刊(구시학간).
- 백종양(白宗讓). 2019. 『《禮記·大學》‘格物致知’新解(《禮記·大學》‘격물치지’신해)』. 중국: 寶雞文理學院學報(보계문리과대학학보).
- 성동권. 2022. 『유교문화의 학문 대학의 감정과학』. 서울: 부크크.
- 성동권. 2023. 『유교문화의 미학 중용의 감정과학』. 서울: 부크크.
- 쑤동해(蘇東海). 1988. 『博物館演變史綱(박물관 변천사강)』. 중국: 中國博物館(중국 박물관).
- 왕서금(王緒琴). 2012. 『格物致知論的源流及其近代轉型(격물치지론의 원류와 그 근대적 변형)』. 중국: 自然辯證法通訊(자연 변증법 통신).
- 원열정(原悅婷). 2020. 『論顧炎武‘博學於文, 行己有恥’學術道德思想(고염무의 ‘박학우문, 행기유치’ 학술도덕 사상)』. 중국: 學理論(학이론).
- 장샤오잉(張曉英). 2022. 『新形勢下博物館社會教育職能的發揮研究(새로운 상황에서 박물관의 사회 교육 기능 발휘에 관한 연구)』. 중국: 文化產業(문화 산업).
- 쯙커밍(曾克明). 2019. 『博物館空間與敘事的美學探究(박물관 공간과 서사의 미학적 탐구)』. 중국: 美術觀察(미술관찰).

- 조중빈. 2016. 『안심논어』. 서울: 국민대학교 출판부.
- 조중빈. 2023. 『자명대학』. 서울: 부크크.
- 천명결(陳明潔). 2023. 『‘博學而篤志，切問而近思’解詁(‘박학이독지, 절문이근사’에 대한 해석)』. 중국: 學語文(학어문).
- 평야오광(彭耀光). 2009. 『伍觀淇「大學」古本“格物致知”解(우관치「대학」고본 ‘격물치지’ 해설)』. 중국: 齊魯文化研究(치루문화연구).
- 한매화(韓梅花) · 나오준(羅軍). 2015. 『焦竑“博學啓悟”論指導下的藏書思想(조형의 ‘박학계오’론 지도하의 장서 사상)』. 중국: 古籍保護研究(고서보호연구).

3. 번역서

- 스피노자 저 · 강영계 역. 2014. 『에티카』. 서울: 서광사.
- 스피노자 저 · 황태연 역. 2011. 『에티카』. 서울: 피앤비.

4. 학회보, 월간지, 계간지 등의 논문이나 기명 기사

- 만용(萬蓉). 2014. “‘博學於文，約之以禮’—試析章學誠「文史通義」反映的治學思想(‘박학우문, 요지이예례’—장학성의 「문사통의」를 분석),” 『長沙大學學報(창사 대학 학보)』, 69.

5. 학위 논문

- 장맹(張孟). 2021. “徐壽‘格物致知’思想探究(서수 ‘격물치지’ 사상탐구).” 山東師範大學校(산둥사범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장학. 2024. “감정과학에 기초한 주자와 왕양명의 ‘격물치지’ 이론 연구 분석.” 국민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 지영매(池永梅). 2018. “公共博物館在歐洲的起源(유럽에서의 공공박물관의 기원).” 廈門大學校(샤먼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Abstract

논문 초록

by Yuan, Meng

Department of Cross-Cultural Studies
Graduate School, Kookmin University,
Seoul, Korea

From the first time I stepped into a museum as a child, I was struck by the entire scene. The array of exhibits, spanning from historical artifacts to works of art, captivated my attention with their exquisite craftsmanship. I felt like I was encountering a plethora of fascinating items I had never seen before. This experience ignited my passion for history and exhibitions, making museums my go-to destination from childhood into adulthood. As I grew older, I continued to frequent museums around the world. It wasn't just about seeking the novelty that museums offered; it was also about finding solace in the museum environment, connecting emotionally and spiritually with others who shared the same goal of exploration.

In recent years, modern museums have seen rapid development, with richer collections and an abundance of vibrant, unique exhibitions. However, despite these advancements, many museums still face challenges such as inadequate promotion, insufficient educational functions, and struggles to attract audiences. Therefore, I chose to study "Cross-Cultural Studies" at Kookmin University. Through this thesis, I aim to address the current issues facing museums using the science of emotions, allowing modern humans to better understand museum culture and have enhanced emotional experiences within them.

The first chapter of this thesis raises three questions: Why do humans establish museums? What are the shortcomings of the educational function of museums? And how do we define the aesthetic concept within museums? By

employing the methodology of emotional science, it is established that the eternal essence of the human spirit is the reason behind the establishment of museums. Through understanding human nature, museums are defined as beautiful and sacred schools.

The second chapter primarily explores the Confucian concept of "To seek knowledge from things(格物致知)" in "The Great Learning(大學)" using science of feelings. It delves into the inherent necessity of understanding the essence of things through internal contemplation and self-understanding, forming cognitive concepts of emotions naturally, and achieving proper learning and understanding of emotions, ultimately comprehending the "Pure and Supreme Goodness(純粹至善)" of things. This is the emotional science interpretation of "To seek knowledge from things." The third chapter utilizes emotional science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extensive learning(博學)" in "The Doctrine of the Mean.(中庸)" What we learn in museums is the inherent necessity of all things. Through our bodies and emotions, which exist infinitely, we understand the inherent necessity of things with our minds, pursuing eternal and infinite life and love, ultimately achieving the highest happiness. The fourth chapter corresponds to the first chapter, providing a detailed explanation of why humans establish museums, how to address the shortcomings of educational issues, and how to understand the beauty and sacredness of museums.

In conclusion, the aesthetics of museums involve exploring the beauty of everything created by humans. Everything exists in its purest form. Human emotions also exist in their purest form. Everything expressing the understanding gained from understanding the purity of nature's purity is present in museums. Learning this fact is the essence of "The Great Learning" "To seek knowledge from things" and the "extensive learning" of "The Doctrine of the Mean." Therefore, our ultimate goal within museums is to achieve a proper understanding of our own emotions and a comprehension of the "Pure and Supreme Goodness" of things. It is essential to recognize that museums are beautiful spaces where human emotions and spirits converge across time and space. Within our museums, we should acknowledge the beauty and value of different eras or the entire world, experiencing the beauty and happiness of integral emotions.

Key words:

science of feelings, museums, aesthetics, human spirit, cultural heritage, human nature, education.